월간 아가페 제398호 · 2017년 5월호 발행 | 퀸즈장로교회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 886-4040, 4347 Fax: 718) 358-7789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퀸즈장로교회

5월 가정의 달

KAPCQ CHRISTIAN MAGAZINE

Agape

아가페 · 爱加比 · Агапэ

퀸장 가족

가족 음악회 준비하는 심포니 가족
퀸장 본당을 점령한 3대 가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역자 가정 이야기
김도현 목사 · 김재형 목사
오인수 목사 · 송요한 목사
陈玉捷传道

김용생 장로 공방 탐방기
예수님 닮아가는 목수가 되다!

치유와 회복의 사순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신 주님
뜨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순절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퀸장공원 묘지분양을 듣다 · 송동율 장로

2017 5

담임목사 김성국
Rev. Seoung Kook Kim
金星局牧师

거기에 내가 있다

제가 몇년 동안 살았던 한국의 대전에는 “뿌리 공원”이 있습니다.
각 가문의 족보를 알 수 있는 공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족보가 기록된 곳 앞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통해 자기의 정체성과 가정의 결속력을 찾습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부끄러운 사람들도 이방인들의 이름도 여럿 나오는데
성경은 애써 감추지 않고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찬란한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의 족보입니다.

거기에 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당당히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이며 당당한 상속자입니다.
하지만 가문의 명예를 잘 지켜야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커버스토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정말 바뀌고 싶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이런 간구함으로 시작했던 사순절 새벽예배...
사진속에 환하게 웃는 예쁘고 멋있는 사순절 가족 개근 하신 **손정호(바울)집사님 가정**을 소개합니다. 와이프이신 석영지(뵈뵈)집사님과 큰딸 손연우(초등부), 작은딸 손지윤(유년부)입니다. “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린다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투정 한번 없이 일어나 옷입는 작은 딸, 처음에 잠투정을 부렸지만 점점 묵묵히 따라 나서는 큰 딸, 아내와 크게 다투어서 다음날 새벽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다음날 차 안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보면서 신비롭고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손집사님은 “죄에 집중하기 보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간증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죄인됨을 알게 해 주신 주님...그리고 평화를 주신 주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이번 사순절에 손집사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 온전함 주시는 주님의 품안을 더욱 소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고 간증하십니다.
[사진 이왕수 집사]

There I am.

In DaeJeon, Korea, where I lived for few years, there is a place called, “Root Park.”
It is a park where you can find genealogies of Korean families.
I saw people coming to this place nodding their heads after they saw their genealogy,
saying to their children about something related with their family.
Through genealogy, people find their identity and reason for their family tie.

In the scripture, there are many stories regarding genealogies.
Especially in Matthew chapter 1, there comes the genealogy of Jesus.
It contains even gentiles and people who were considered shameful to the family at Jesus’ time,
but the bible does not show any effort to hide from us, but rather openly tells us about it.
And, it is grace of God who works through even the people with many weaknesses and flaws.

We are in it, as well. We are in Jesus’ genealogy.
We are adapted as God’s children, and legitimately put into his genealogy.

We are respectable children, legitimate heir of God.
And, we must remember that because of that we also have responsibility to uphold
the honor of family. In this may, which is the month of family for our church,
let us remember that we are in Him, in His household.

我的名也在内

在我所生活过几年时间的韩国大田市，
有一个“根基公园”。
这是一个可以知道各个家族族谱的公园。
总是能看到有很多人停留在记录着自己家族族谱的地方前面，
不禁点头，然后对着自己的子女讲述着什么。
人们通过族谱找到自己的本质与家族的一致性。

圣经中有很多关于族谱的经文，
特别是马太福音1章耶稣的族谱里，有羞耻的人，
也有外邦人的名字完全没有被掩盖，都记录在圣经里。
而这些人的名字不再是让人觉得羞耻的，
且成为灿烂的耶稣族谱不可分割的部分。

我的名也在内，在那耶稣的族谱里。
因为我们是被神所拣选的子女，
所以是不愧的记在耶稣的族谱上。
我是天父约定的子女，名副其实的继承者。
但是，不能忘记自己也要遵守家族命令的责任。
五月是家庭月，是的， 在耶稣的族谱里，
在天父的家里，我的名也在内。

И я там есть.

В городе Теджон, Южная Корея,
где я жил несколько лет, есть один сад,
называется "Сад Корней".
В этом саду, можно увидеть родословные всех
фамилий. Я замечал как люди, покачивают
головей перед этими родословными и что то
объясняют своим детям. Люди через эти
родословные, узнают многое о себе и своих семьях.
В Библии очень много перечеслений родословных.
И в Евангелии от Матфея 1 главе,
также есть родословная.
Много в ней и людей за которых стыдно,
язычников и Библия не скрывает их все показывает.
Встречаясь в родословной Иисуса Христа,
они уже не люди за которых стыдно.
А предки великого Иисуса Христа.
Это родословная благодати
В этой родословной и я. В родословной Иисуса
есть и я.
Мы все усыновленны и стали детьми Божьими.
Поэтому мы имеем полное право быть в
родословной Иисуса.
Я являюсь чадом Божьим и поэтому я наследник.
Но не будем забывать с вами,
что мы должны хранить честь Божьего Рода.
Май это месяц семейный. В родословной Иисуса,
в семье Божьей, там есть и мы.

아가페
제 398호
2017. 5

1 신앙시론 | **거기에 내가 있다** 김성국 목사
5 신앙찬양 |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박이순 목사
6 2017년 3월,4월 | 담임목사 설교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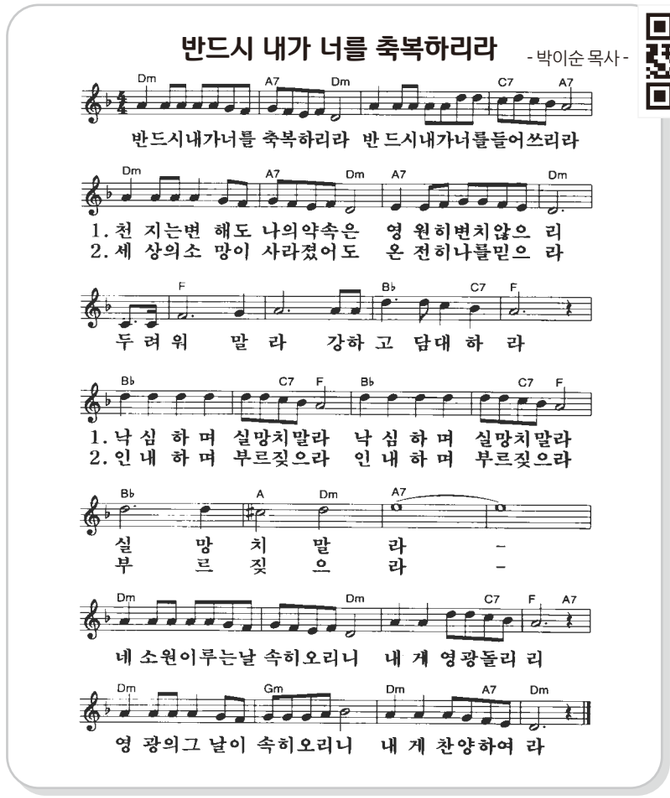
5월 가정의달 특집

8 **가정의 달 | 심포니 가족** 김지현 집사
9 **가정의 달** | 아리나레에서 허드슨 까지 김기호 장로
10 **가정의 달** | 퀸장 본당을 점령한 3대 가정 김석영 권사
11 **가정의 달** |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这都是神莫大的恩典! Huang, Zanwei
13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 지어다! | **사순절 서원 특별 새벽기도회 매일 스케치** 이숙규 집사
16 **공방탐방기** | 목수장이 김용생 장로님 정민영 집사
17 상처받아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심석순 권사
18 유아세례 간증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박승희 집사
유아세례 간증 |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기를 김려화 집사
19 유아세례 간증 | 그래 바로 이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김숙화 성도
20 유아세례 간증 |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이세현 집사
21 종려 주일 | 종려 주일에 주신 주님의 복된 선물 정혜경 권사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 |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승리 편집부
22 **가정의 달** | Soli Deo Gloria! Rev. Peter D.Kim
23 **가정의 달**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가요 김재형 목사
24 **가정의 달** | 예쁜 아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와 하나님께 기쁨 올려 드리는 가정 오인수 목사
25 **가정의 달** | 부르심 받은 선교사역과 네 명의 동역자 송요한 목사
25 **가정의 달** | 퀸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Pastor Yu Jie Chen
27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편집부
28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 생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황은애·최효진·홍한나 권사
30 부활주일 교회학교 스케치 편집부
31 QPCM | 3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Chen, Minghao
32 QPCM |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Chang, Da
33 QPCM |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Liu, Shuqin
34 QPCM | 세례 받은 간증 Gao, Xi
35 QPCM |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 Wu, Xiaodan
35 QPCM | 중국어부 어린이 주일예배에 대하여 천위제 전도사
36 교회소식 | 로비 증축 완공 감사예배, 선교회 헌신예배 편집부
37 **사순절 치유 간증** |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박만우 집사
38 **사순절 치유 간증** | 나의 등뒤에서 나를 지켜 주신 주님 강춘화 권사
39 **사순절 치유 간증** | 뜨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주봉순 권사
40 **사순절 치유 간증** |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순절 손정호 집사
41 **태아교실 간증** | 태아교실에서 받은 사랑 손명금 집사
42 **태아교실 간증** |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명샛별 집사
43 QPEM | **10년의 기도** 피터 유
QPEM | Easter Confirmation Jacob Whang
44 **차량부** | 차량 운행부 일일체험·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이 되어... 조성순 집사
45 **차량부** | 주차가 편한 학교 주차장, 셔틀부가 모십니다/순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 최전상·차광혁 집사
46 **차량부** | 나에게 차량부란 ? 차량부
47 **차량부** | 사순절 차량 봉사자 회식 모임 편집부
48 **차량부** | 주일예배 주차대책 마련에 기도와 지혜를... 최원일 집사
49 **소유영 전도사의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송동율 장로** 소유영 전도사
50 **성경퀴즈** | 성경공부 하GO, 퀴즈 풀GO, 상품 받GO 편집부
51 2017년 3월 | **새가족 안내** 편집부

- 신앙 찬양 -

"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 히브리서 6장 13-15절 -**



축복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데,

복(福)은 음식을 잘 차리고(豊) 제사(示) 지내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祝福)은 빌어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자에서 축복의 의미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의 개념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가 빌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해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끈임 없이 구하며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성경이 한자를 번역하여 쓰다 보니 간단히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한자의 뜻과 같은 빌어 받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의 개념임을 잘 이해해서 사용하는 것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 **넉넉한** (로마서 8:37)이라는 형용사는 크기, 수량, 시간 따위가 어떤 기준에 차고도 꽤 남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풍성함** (에베소서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 **충만(**에베소서 1:23)이라는 명사는 '가득하게 참'을 이야기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넉넉함과 풍성함 그리고 충만, 넘침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퀸장가족 여러분께 말씀 하십니다.

"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

2017년 3월 19일	에베소서 2:19-22

건물에서 성전으로

건물은 성도 각자를, 성전은 이 성도들로 이루어진 진정한 교회를 의미한다.

1. 왜 성전이 필요한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엡 2:22). 온 세상의 창조주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나 거처로 삼길 원하시는 곳은 특별히 구별하셨다. 처음에는 에덴을(창 2:8), 광야의 성막 가운데 지성소와 그 후 예루살렘 성전 안의 지성소를 거처로 삼으셨다.

지금은 본문에 성전(거룩한 집)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거처로 삼으시길 원하시며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확장되어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거룩한 성)을 거처로 원하신다(계 21:1-4). 이 모든 곳의 공통점은 '거룩'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곳을 거처로 구별하여 삼으셨다.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실 수 없는 교회는 사람들의 헛된 바람, 생각이 꽉 차 있는 어둠이 있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은 곳이다. 비난의 가시, 원망의 가시, 절망의 가시, 미움의 가시를 다 꺾어 세상 것 버리고 오직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머무시기 합당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2. 어떤 재료로 성전이 만들어지는가?

이미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과 외인과 나그네 중에서도 불러 함께 성전을 만들어 간다(엡 2:19).

외인, 나그네라 부르는 자는 이제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헛된 것을 위해 살고 정처 없이 살던 인생들이다(엡 2:1-3,12).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불러 앞선 성도들과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가야 할 책임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로 스스로 거하실 처소를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3. 어떻게 성전이 만들어져 가는가?

성전 건축의 기초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 즉, 말씀 위에 세워야 한다.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모퉁이 돌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마지막으로 끼어 넣어서 건물의 완성을 이루는 돌 즉, 예수이다(엡 2:20b,21),(마 21:42). 예수님으로 성전이 완성된다.

성전 건축의 진정한 건축자는 성령님이시다.

성전은 말씀과 예수, 성령으로 단단하게 이뤄진다 (엡 2:20-22a).

퀸즈장로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2017년 3월 26일	에베소서 3:1-13

마침내 비밀을 알다

하나님에게는 어느 시대에도 공개한 적이 없는(엡 3:5b) 감추었던 비밀(엡 3:9)을 바울에게(엡 3:3),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엡 3:5a), 교회에게(엡 3:19a) 알려주어 마침내 비밀을 알게 되었다.

이 비밀은 온 세상과 심지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들도 알아야 하는 그리스도(4절), 복음(6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7절)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예수그리스도 이다. 예수님만이 분명한 길이시며, 유일한 진리이시며, 진정한 생명이시며, 참 사랑이시며, 참된 주인이시라는 비밀이 알려졌다.

본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6절)' '교회로 말미암아(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12절)'의 세 번의"말미암아"라는 구절과 마침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연관되어있다.

1. 복음으로 말미암아

비밀의 이름을 복음으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엡 3:6).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던, 하나님의 좋은 약속과는 아무 상관이 없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이 이 세상을 넘어 천국을 약속해 주고 있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와 죄의 정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상속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까지도 얻게 된 것을 포함한다.

복음은 보화 중에 보화로 이 복음을 품고 자랑하며 복음이 약속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축복임을 알고 있는 바울이 감옥에서도 주를 위한 고난은 영광이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엡 3:13).

2.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 비밀, 복음이 세상 사람들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신다(엡 3:10).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즉시(행 9:19b-20) 전파하였다. 은혜 받은 것은 감출 수 없는 것으로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세상 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즉, 악한 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자신들의 패잔병 신세를 알아 사람들을 미혹치 못하게 해야 한다(골 2:15). 복음의 비밀은 안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은 소망을, 악한 영은 더욱 절망하게 된다.

3.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안 자들의 삶은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엡 3:12)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미래를 보아야 한다(히 12:2). 오직 믿음은 미래에 대한 태도로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음으로, 교회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삶을 갖고 승리하자.

2017년 4월 2일	에베소서 3:14-21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서 3장 20절 하단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이란 기대이상이라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기대이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기대이상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을 살기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알아보자

1. 기도하라

바울이 간절히 세가지를 위해 기도한다(엡 3:14-15).

1) 성령의 능력을 구함(엡 3:16)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스데반은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증인과 용서와 순교의 삶을 살 수 있었다.

2)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함(엡 3:17-18)

세상의 사랑(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과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며 상대방을 위하여 희생하며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간구함으로 기대 이상의 삶을 살게 한다.

3) 하나님의 충만을 구함(엡 3:19)

하나님의 모든 충만(기쁨, 감사, 말씀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2. 기대하라

기대 이상의 삶을 기대해야 한다(엡 3:20). 하나님은 기도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심을 기대: 다윗은 시 62:11에서 하나님에게 능력있는 전능자라는 말씀을 한 두 번 들었는데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 시편 62:5-7을 고백하며 살았다.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심을 기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구한 지혜도 주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왕상 3:13).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마 7:11).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구하지 않은 것, 구하지 못한 것 까지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주신다(고전 2:9).

*천국에서도 생각이상 기대이상의 천국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 기대이상의 삶은 영원무궁이 계속된다(엡 3:21). 그러므로 모든 것에 기대이상의 삶을 기대하며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한다.

3. 기억하라

기대 이상의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한다(엡 3:21).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앉은뱅이는 동전을 구걸하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 했던 기대이상의 인생이 되고나서 즉시 찬송하였다(행 3:8-1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2017년 4월 9일	에베소서 4:1-16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에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예수님의 부르심(마 21:1b-3):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며 묶여 있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풀려나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게 된 것이다.

2) 예수님의 낮아지심(마 21:5-7):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멍에를 메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

3) 예수님의 높아지심(마 21:8-9):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며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송함은 무리가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하며 높이 찬양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

1. 예수님의 부르심(엡 4:1)

갇혀있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 안에서의 부르심(엡 4:4)이라며 현실을 뛰어 넘어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다. 종려주일에 대한 구약의 예언 중에 놀랍게도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은 다름 아닌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네게 임하시는 네 왕이다. 그러므로 현실이 어려워도 소망을 품으라."(슥 9:9, 9:12a)고 되어있다. 종려주일인 오늘은 힘들어도 소망을 품으라는 부르심의 날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성도를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라고 불러 온전케 하기 위함이다(엡 4:11-12).

'주가 쓰시겠다' 함에 나귀는 즉시 사명의 길을 갔듯이 직분을 주어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시겠다함에 머뭇거림이 없이 즉시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평생 사명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것이다.

2. 예수님의 낮아지심(엡 4:9)

'겸손이란 자기의 원래 자리를 포기하고 더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낮은 곳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 원래 자리는 하늘의 보좌이나 만물의 주인이신 그 자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
* 가장 부요하신 분이나 촌동네 나사렛에서 사셨다.
* 세례요한을 만드셨으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 스승이신 분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다.
* 왕이시나 짐을 싣는 나귀를 타셨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선 겸손을 배워야 한다(마 11:29a).

3. 예수님의 높아지심(엡 4:10)

이 땅 낮은 곳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마침내 하늘 위로 올라가심으로 낮아지셨던 그가 다시 높아지셨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빌 2:5-11)
지극히 높아지는 것, 뛰어나나 이름을 갖게 되는 것, 하늘과 땅에의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는 것,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가정의 달 특집

한국에서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 가정과 관련한 기념일들이 많아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으며, 퀸즈장로교회 역시 5월의 첫주는 어린이주일, 둘째주는 어버이주일로 지키며 가정의 달에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 눅 8:21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한 가족이다. 퀸장가족 모두가 성경적인 가족이며 가정이다. 아가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퀸즈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고자 한다.

심포니 가족

" 4악장의 인생 교향곡 "

김지현 집사

"바바바밤~, 바바바밤~" 하면 곡조가 없는 글을 읽어도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인 줄 많은 분들은 알것입니다. 음악에는 숨어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인생이 음악입니다.

저의 아버님의 인생을 음악에 표현할 수 있다면 4악장으로 된 교향곡에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1악장은 일제시대를 겪으시며 나라와 글을 잃어버리신 가운데 음악이라는 작은 소망을 찾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시는 "환희"교향곡. 2악장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 월남하시고 군대에 들어가셔서 6.25 전쟁 속에 죽음을 스쳐 지나가는 여러 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하게 하시고 어머님을 만나 결혼까지 하시는 "운명" 교향곡이며, 3악장은 시립교향악단에서 트럼본 연주자로 지내시다 , 한 가정의 가장으로 미지의 나라 미국에 미리 오셔서 자녀들의 장래를 일궈놓으신 "신세계(New World)"교향곡입니다. 아직 마치시지 못한 "미완성 교향곡" 4악장은 퀸즈장로교회를 40년 가까이 섬기시며 장로님으로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시고 이제는 아브라함 선교회 전임 트럼본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때 아버님의 삶은 심포니 교향곡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띵가 띵가" 반면 저의 음악 인생을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미뉴에트(Minuet)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4박자의 춤에 마추어 연주되는 우아한 음악 그런 곡이라서가 아니라 단어 그대로 1분(Minute)만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때 바이엘 30번으로 나의 음악인생은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때 아버님께서 어느날 사오신 클래식 기타는 또한 또다른 나의 음악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심히 기타를 친 보람으로 태초부터 우리교회의 찬양과 경배팀도 섬기게 하시고 내가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에 반한(?) 김유경권사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준열이도 중등부 찬양팀을 리드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배와 찬양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통해 우리 교회의 앞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찬양의 도구로써의 역활을 잘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님의 88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자녀들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해외나, 안 가보신 좋은 곳으로 여행을 보내드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버님께 88세를 기념하면서 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냐고 여쭤보았을 때, 아버님께서는 우리 가족 음악회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는 4남매가 각각 다른 교회를 섬기는 관계로 함께 모이는 시간도 자주 없지만 함께 노래를, 음악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드물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민 초기에 이제는 50세을 넘으시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청년부를 함께 섬기면서 찬양대와 중창단, 교사와 반주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특히 건축을 위한 '메시야' 공연 때는 저를 뺀 온 가족이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기억이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우리 형제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음악을 대하다 보니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고 가정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제 목사가 되셔서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시고, 큰 누님은 얼마 전까지도 퀸장 반주자로 섬기다 지금은 타교회의 반주자로 섬기고 있으며, 작은 누님은 또한 매형이 섬기는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서 30여년전 6명의 가족창이 이제는 20명의, 4세대의 멤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회가 주어짐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기호 장로님 김지현 집사님 Family

"빰빠빰" 하고 아버님의 울려 퍼지는 트럼본 소리로 이 교회 본당이 채워 지는 날을 준비하며 이 밤은 결코 우리 가족만을 위한 밤이 아니고 이 교회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희생하시며 섬겨오신 수많은 분들을 기념하는 밤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훌륭한 음악가들이 있는 가정이 많고, 더욱 오래도록 이 교회를 섬기시는 가정도 많지만 부족한 저희들이 시작하는 이런 모임이 앞으로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 작은 음악회를 허락하시고 많은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리나레*에서 허드슨 까지

김기호 장로

"아가페"와 소원(疏遠)해 진지 꽤 오래다. 오래간만에 원고 청탁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이제 내 나이 팔팔(88)이 되니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짐을 느끼면서, 그 동안 내가 나팔 불며 살아온 일생을 정리하는 의미로 6월 4일(주일) 오후 4기에 "가족음악회"를 열려고 한다. 음악회 내용의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서 내가 일생을 나팔불며 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는 일정시대에 압록강 하류에 있는 위화도(威化島)에서 태어나 중학교 졸업때까지 일본교육을 받았다. 4년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음악부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다. 바리톤으로 시작했다가 트럼본으로 바꿨다. 4학년때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소위 대동아전쟁)에서 패망하면서 나는 조기 졸업했다. 중국에서 신의주로 건너와 신의주상업학교에 편입하면서도 음악생활은 계속되었다. 신의주 학생사건(학생들이 공산당교육을 반대하는 사건)이 나면서 학생들이 많이 검거되면서 공포의 시기가 왔다. 46년에 음악부 동료 둘과 함께 험한 38선을 넘어 남하했다. 청운의 꿈을 안고 넘어왔지만 혼란한 시기에 그리 쉽지 않았다. 17세의 나는 미군부대에 가서 노동하면서 입에 풀칠하며 살았다. 공부의 꿈은 그리 쉽지가 않았다. 노숙하기도 여러번 하던 중, 어느 악기점 윈도우에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조선경비대 제1연대군악대서 모병한다는 광고였다. 우리 셋은 의기 투합하여 즉각 응시했다. 제1연대는 태능에 있었다. 46년 10월 3일부터 군대생활이 시작된다. 우리 셋은 중학교 밴드부 출신이라 군악대에서도 대환영, 총애받았다.(그때 군악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계원 장군이 소위때였다). 1950년 6.25사변이 일어날때 우리 셋은 모두 특무상사가 되었다. 그래서 동료들은 "별의 삼형제"라며 선망했다. 51년 전쟁이 치열할때 우리는 준위로 임관되면서 뿔뿔이 헤어지게 되었다. 나는 저 유명한 수도사단 군악대장으로 발령됐다. 최전선에 나가 사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힘썼다. (비화 한마디. 1952년 12월 3일 당시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자 드와이드 아이젠하워 장군 방한 일선시찰=수도사단=시에는 영접행사 및 연회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 대장 김기호준위가 아이젠하워 장군으로부터 직접 칭송 및 격려의 악수를 받은 바 있다. 라고 육군군악사에 계재). 57년에 제대할 때 중위였다. 나는 서울시립교향악단에 입단해 음악생활이 이어졌다. 그 당시만해도 우리나라 형편이 북한보다 낮았다. 교향악단이라곤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 둘 뿐일때였다. 월급도 쥐꼬리만 했다. 얼떨결에 단신 도미하게 되었고 여차여차하여 퀸즈장로교회에 등록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대강 이렇게 나의 70여년의 생활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죽을 고비도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그때 주님의 자비하신 손과 가슴이 나를 껴안아 주셨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나의 회고록을 펴낼 심산이다.

* 아리나레가 무엇일까? 나의 어린 소학교시절, 우리 학교 건너편에 일본인 여고가 있었다. 한번 그 학교 교가를 들은 일이 있었다. 그 학교 음악선생이 지었다고 했는데, 어찌나 아름답던지 내 마음에 쏙 들어박혔다. 그 가사 중에 아리나레요~ 하는데 아리나레가 무슨 말일까? 궁금했지만 알 수가 없었다. 미국와서 일본어사전을 뒤저보니까 그 해답이 나왔다. 아리나레(阿利那禮)=압록강의 옛이름이라 했다.

소통하는 다민족교회

한마디씩 배워요 ^^

감사합니다	KamsaHamnida	감사합니다
Thank You	θæŋk juː	땡큐
谢谢	Xièxiè	씨에씨에
спасибо	Spasibo	스바씨-봐

- 김성민 집사 가정 -
“ 퀸장 본당을 점령한 3대 가정 ”

김석영 권사

김성민, 지영, 은결, 석영, 한결, 영웅, 성원, 은아

주일이면 오전 8시30분, 1부 예배에 큰 아들네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남편 김영웅집사는 본당 앞자리에서, 큰 아들 성민집사와 손주 한결이는 발코니에서, 며느리 지영집사와 손녀 은결이는 자모실에서, 저는 찬양대에서 온 가족이 본당을 점령하고 드리는 예배로 주일 아침이 시작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배를 마치면 친교실 귀퉁이에서 함께 주일 만찬을 즐기며 가족들의 한주 일간의 이야기꽃이 만발하니 그 또한 더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습니다. 어린 성민이와 성원이를 데리고 퀸장을 찾았던 때가 벌써 30년 전 일이니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시댁식구들과 동도교회를 섬겼고 미국에 와서 1987년도부터 등록을 하지 않은채로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1990년에 이귀순전도사님께서 등록하고 다니라고 권하셔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민 초기, 의지할 곳 없고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였습니다. 이런저런 힘든 시기가 있을 때마다 주의 전을 찾아 힘을 얻고 쉼을 얻을 수 있었으며 사춘기 두 아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맡기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었던 것도 큰 은혜입니다.

제 평생의 반을 지내온 퀸장에서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무엇 하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미국으로 이민와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하신 것도 큰 축복이 되며 교회에서 바르게 성장한 두 아들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겸손한 두 자부들을 허락하신 은혜 또한 큰 감사입니다.

세월이 흘러 손자, 손녀까지 보게 된 요즘은 한결이, 은결이 할머니로 더욱 행복하답니다.

큰 아들이 결혼을 하고 3년여가 지나며 임신소식이 늦어졌을 때에 남편 김영웅집사와 함께 사순절기도제목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린 후 바로 응답을 받아 얻은 손주가 한결이입니다. 온 가족의 기도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얻은 한결이로 인해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으로 헛웃음을 자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의 생각같지 않은 모습으로 대견함에 웃음짓게도 만드는 한결이와 은결이입니다. 이제 막 세살이 된 손녀 은결이는 요사이 교회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며 아무때고 뜬금없이 “우리 교회는 언제가?” 라고 물어본답니다.

어느날은 한결이가 차를 타고 가다가 뒷자리에서 혼잣말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셨어요.” 하는 걸 제 아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신거야.” 라고 가르쳐주니 “똑 같은거야.” 라고 대꾸해서 온 식구가 할말을 잃게 만들기도 하며, 제 아비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 1계명 부터 하나씩 알려주며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알려주니 “살인이 뭐야?” 라고 물어보더군요. “사람을 죽이는건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아버지에게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잖아.” 라고 대꾸해서 온 식구가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늘 집에서도 성경말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엉뚱한 질문과 대꾸를 하는 한결이로 인해 아들과 며느리가 곤혹을 치를 때가 종종 있답니다. 하지만 교회안에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대 악보를 정리하고 예배실을 정돈하는 한결이로 인해 제가 인사를 많이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그만 녀석의 엉뚱한 행동에 칭찬을 해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어린 손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으로 바르게 잘 키워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과제가 저희 부부에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저희 시어머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반듯하게 신앙을 지키며 기도함으로 자녀손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대를 이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겠지요.

하나님의 은총이 대를 이어가서 축복의 가정을 이루며 받은 복을 나누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这都是神莫大的恩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黄赞微姐妹 (Huang, Zanwei 자매)–

亲爱的弟兄姐妹，主内平安！很高兴有机会和大家一起分享神给我们这个大家庭的经历。我们三代同堂在韩中长老教会中文堂一起追求服侍主，实在是神莫大的恩典。在我们一家还没来美国前，我的婆婆邀请弟兄姐妹一同为我们一家人平安来到美国守望代求，感谢神应允了祷告，致使我们一家都来到这里，我也有幸能和大家分享我们这个大家庭的见证。

我们刚来到美国的第一个礼拜我婆婆就带着我们一家大小来到了韩中长老教会崇拜，初来乍到，我就深深感受到我们的教会给人一种特别温暖的感觉，因着弟兄姐妹的热情招呼爱戴，让我没有对于新的地方产生陌生，冷漠的感觉。一路下来，我也越来越欣赏我们的教会，它有一套很完备的体系，层次分明；我们有韩文堂，英文堂，中文堂和俄文堂，也有专门为孩子所设立的崇拜堂，有幼儿部，幼稚部，小学部，中学部，高中部，大学部，青年部等等。更主要的是，我们的教会是一间注重神话语的教会，我们中文堂的传道人每次所传扬的神的话语都很扎根在我们的心里，神每次都是借着传道人的口对我们说的，每次都正中下怀。每次借着神话语的喂养，以及在教会里的团契相交，使得我们的生命都渐渐更新，不再一样，也心甘乐意的服侍神。

先提到我的婆婆，她一直是神的使女，不但乐意来查经或祷告会，更是在教会服侍非常殷勤，任劳任怨，每次大大小小的聚会，需要在膳食上帮忙的，她都是一个有力的好帮手。其次，在传福音上也是一样，无论刮风下雨，天寒地冻，她都会照样出去街头佈道发单张，传扬福音。她有时也会带着我们家的小儿子，一同参与教会事工。她嘴巴上经常挂着一句话就是，都是神的恩典，全是恩典，感谢主。

然后关于我的先生呢？在我们未来到美国之前，我们一直都有在教会服侍追求，但后来由于做生意的关系，经常要喝酒应酬，把起初那份爱主的心都丢失了，从起初信靠耶稣的心到后面变成一种形式来聚会，对神也越来越冷淡了。来了美国后，借着弟兄姐妹和我们一起的守望祷告，神是施怜悯的神，神在我先生心里动了奇妙的工，使他再一次的回到神面前，也乐于参加查考神的话语的聚会，并且开始在服侍上也积极参与，无论是弟兄团契，或是晚堂服侍，他都愿意一同来参与其中，与弟兄姐妹相交，一同来追求侍奉主，实在是感谢主。

至于我，我是一个基督徒家庭长大的孩子，一直以来爸妈主日都会带我去教会敬拜赞美，从小就被养成去教会的习惯，一直到我高中毕业，选工作，婚姻一切都很顺利，都是神一直的保守和眷顾。来了美国后，全新的环境，全新的开始，神也一直让我学习顺服的功课，在工作上和教会的侍奉上，时间上是有冲突的，神让我学会顺服，要将神摆在第一位，也让我在和先生的相处里，让我学习顺服丈夫，因为我所拥有的这一切都是神所赐予的。借着神话语的教导与吸收，让我顺服神的带领，在司琴的职分上，尽心的去摆上，同时我也在学习如何好好的祷告，为家人守望。

我有两个女儿和一个儿子，大女儿在高中部，感谢主的预备，在我们的教会里有属于她同辈的人一起崇拜，虽然在语言上不通，神也预备了可以翻译中文的老师来辅助她，她也在其中慢慢适应了，并且我发现大女儿的脾气也渐渐变好了。二女儿高怡在初中部，她也在一步步融入，我也觉得她也越来越听话了。我的小儿子才3岁多，从小体质比较弱，因为他一岁多时就动过心脏手术，他的命是神给救的，到如今他也经常跟着我的婆婆一起来教会，也一起出去传福音，我发现，他的体质也好了许多。这些都是神赐给我们的产业，也是神替我们来照料他们。

到如今我们真的非常的感恩。我们的神真的是一位有怜悯有恩典的神，在这一切的过程中，我们有过埋怨，有过怀疑，但神仍然听我们大家的祷告，神用不同的环境来改变我们，纵然我们一次又一次的悖逆，但是他还是爱我们到底一直不放弃。虽然刚来美国是很辛苦，但是有主的同在，弟兄姐妹的交通，是何等喜乐。当趁着年轻努力做主的工，这是何等的有福。求主加给传道体力能力灵力，让主复兴我们的教会，让传道所讲的信息，能够使众弟兄姐妹听了灵命长进，活出基督的样式，发光做盐，将一切的荣耀都归给我们天上的父神，直到世界的末了，阿们!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 분들과 함께 저희 3대 가정의 체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현재, 저희 3대 가정 모두 퀸즈장로교회 중국어부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이 미국에 오기 전, 먼저 미국에 오신 시어머니는 우리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에게 기도부탁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저희 가정은 미국에 잘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미국에 와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도착한 첫 주일 예배에 시어머님은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까지 모두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시작부터 우리 교회에 대해 아주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형제, 자매들의 친절한 호칭과 배려는 저에게 낯설고 차가운 새로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체계도 완전하고 구체적으로 잘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 중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세워진 예배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모두 갖춰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중국어부 전도사님은 매번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사의 말씀을 통해서 매번 우리에

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친교모임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점점 새롭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저의 시어머니를 먼저 소개 하자면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성경공부와 기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석 할 뿐만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크고 작은 모임과 그리고 주방봉사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은 시간에 노방전도에 나가 전단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하지요. 시어머니는 때로는 저의 작은 아들을 데리고 교회봉사에도 참석합니다. 자주 하는 말은 '항상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며 말씀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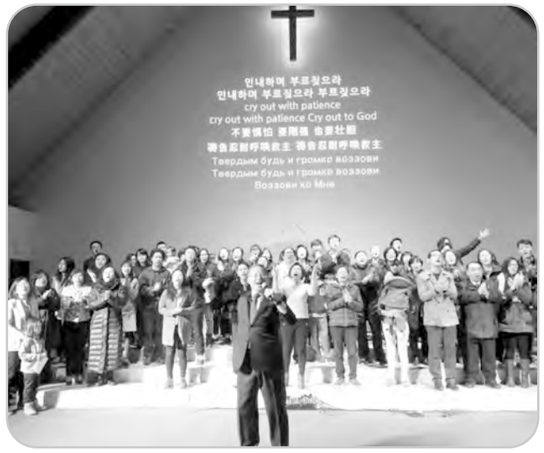
저의 남편에 대해 소개 하자면 미국에 오기 전, 저희 부부는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였지만, 후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술자리에 자주 다니면서 주님을 사랑했던 첫 사랑을 잃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의지 하였던 첫 마음은 어리론가 사라지고 형식적으로 모이는 신앙이 되었고 점점 차가워져 갔습니다. 미국에 와서 형제, 자매들의 중보기도를 통해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는 모임에 인도하셨고,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형제모임 뿐만아니라 저녁예배 봉사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주일마다 부모님은 항상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가서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로 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기까지 모두 평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와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과 교회봉사 사이에 시간 상의 충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1순위로 생각하는 순종을 배우게 하셨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반주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시고 동시에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두 딸과 아들 한명, 모두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에 따라 큰 딸은 고등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언어부분에서는 소통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중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선생님을 붙혀 주셔서 천천히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딸의 성격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둘째 딸 gao,yi는 초등부에서 예배 드리며 순종도 잘 배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셋째 아들은 3살 좀 넘었지만, 1살 넘었을 때 심장 수술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몸이 비교적 허약한 편입니다. 아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현재 아들은 자주 저의 시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나와 함께 전도도 나갑니다. 아들의 체력도 많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돌보십니다.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겪는 과정에서 때로는 원망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점점 변화 시키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한번 불순종 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비록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제, 자매님들의 교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천전도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메세지를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의미

구약에서 가정을 의미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미슈파하'(mishpahah)는 가족, 개인들의 가조적인 인연을 의미하는데, 친족, 지파, 민족을 의미하기도 한다(민3:15, 삿13:2, 암3:1,2). '엘레프'(elep)는 사사기 6:15에서 '가족', 즉 1천명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했다(참고, 삼상 10:19, 미5:2). 이와 같은 낱말의 사용으로 볼 때에, 구약에서의 가정이란 넓은 의미로는 혈통이나 결혼에 의해서 연결되는 사람의 그룹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일컫는다.

모세의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것이 사회질서와 논리 개념의 기초이다. 즉, 가정교육과 사회생활은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신명기 교훈에서도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신명기는 부모의 제사장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신6:4-9) 구약에서 가정은 교육과 예배의 기능,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미 교회의 기능을 했다. (예배의 기능, 교육적 기능, 위안적 기능, 보존적 기능)

제 30 회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 너를 고쳐 주리라 - 건강할지어다! "

2017년 3월 6일(월) - 4월 16일(주일)

사순절 Day-19	마태복음 6:25~34

" 치유란 무엇인가? "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땅의 모든 가정의 주인되셔서 통치하시는데, 아버지께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첫째, 하늘의 아버지를 인식해야 한다. 공중의 새도 하늘 아버지의 운행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은혜, 역사하심 속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하늘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므로, 어떤 순간에도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셋째,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늘 아버지께 구하고 찾아야 한다.

사순절의 반환점인 4주차 첫날,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날 성도들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이날 말씀 후에 찬양, 기도시간에는 모든 교회학교 교사, 학부모님들을 위한 기도시간이 주어졌다. 지금의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다. 헌신되고 충성된 교사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각 교회학교 부서들을 통해 이 어그러진 세대를 다시한번 일으켜 세우는 부흥의 주춧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사순절 Day-20	창세기 50:15~21

" 복수냐 용서냐? "

첫째,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모든 삶의 갈등 및 상처를 주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둘째, 용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1) 올바른 해석으로 용서해야 한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야기 해야 한다. 2) 따뜻한 말로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3) 놀라운 선물로 용서하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상상 못한 놀라운 일로 용서해야 한다.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 로비 바닥공사로, 오늘은 예배실을 들어서는 입구가 바뀌었다. 교역자분들과 안내로 섬기는 분들이 성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나와서 안내하는 모습이 보인다. 여러 많은 분들의 섬김으로 질서를 갖춘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한다. 또한 감사할 것은 사순절 시작하면서 영상에 문제가 생겨 나오지 않던 본당 화면이 수리가 되어 원상 기능을 회복하였다.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힘쓰는 방송실의 노력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사순절 Day-21	신명기 28:7~14

" 창고에 명령하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창고에 명령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창고를 만들라. 먼저 창고를 잘 만들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야 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대적하고 싸우고 엎드릴 때 창고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창고에 담아라. 사사로운 것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참된 복이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 셋째, 창고를 열어라. 축복은 흘러야 하는데, 진짜 축복은 쌓일 곳이 있어야 하고, 흘려 보낼 곳이 있어야 한다.

사순절 기간의 반환점을 도는 4주차 수요일,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맡은 성경봉독 순서는 청년선교부가 어제로 끝내고, 청년대학부의 청년들이 맡아 한다.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이러한 훈련들을 통해 어그러진 이 세대를 바로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리더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22	마태복음 8:5~13

" 내 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 "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도이다. 기도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고 사는 것이다. 둘째, 말씀이다. 백부장은 말씀에 능력을 알았고, 한 말씀이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셋째, 확신이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예배가 다르다.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 전후로 거의 매일 찬양하는 곡들이 있다. 모든 찬양이 그렇듯이 찬양은 우리 삶 가운데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너를 고쳐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이 찬양들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부르지만, 마음에 더욱 위로가 되는 찬양은 단연 '일어나 걸어라'가 아닐까 싶다. 우리 교회가 매일 찬양의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사순절 Day-23	룻기 1:1~5, 4:13~17

" 해피 엔딩 스토리 "

처참한 상황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떠남이다. 먼저 모든 죄에서 떠나야 한다. 단순히 회개에서 그치지 말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 또한 익숙한 관계에서 떠나야 한다. 두 번째는 따름이다. 먼저 룻은 하나님을 따랐다. 나의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룻은 어머니를 따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새벽부터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오늘은 러시아예배부의 블라지미르 형제의 기도와 러시아어권 회중들의 말씀 전 찬양이 있었다. 작년 5월 첫 러시아어 예배를 드린 후, 아직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신실한 자들이 함께 모여 최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러시아어로 부르는 그 가운데, 그 고백이 러시아어 회중들과 우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24	역대상 4:9~10

" 부모 때문에 나 아프다 그런데 부모도 나만큼 아프다 "

상처받은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아버지의 부재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어머니가 붙여 주었다. 고통 중에 철저히 망가졌던 야베스였지만, 자기 정체성을 알았고, 자신의 목표가 있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한 사람의 비전이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또한 야베스 못지 않게 부모에게도 상처가 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치유의 공간을 통해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한다.

사순절 4주차 토요일, 중고등부 학생, 교사들의 총동원 새벽기도 찬양이 드려졌다. "주님과 같이" 영어로, 또 한국어로 드리는 찬양.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가사의 고백이 이번 사순절 내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오늘은 또 중국어 예배 회중들이 마음을 다해 햄버거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대접했다. 이러한 서로의 나눔이 우리 교회와 주변 커뮤니티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순절 Day-25	에스겔 37:1~10

" 마른뼈여, 살아나라 "

마른 뼈,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첫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말씀으로 기본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셋째, 성령으로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의 바람,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사순절 5주차, 이제 부활주일까지 2주만 남은 가운데 어느 때보다 더 기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닫는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 사탄도 그만큼 우는 사자와 같이 각 개인의 건강과 영적인 부분으로 틈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릎으로,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사순절 Day-26	사사기 6:11~18

" 리더여, 결코 소심하지 말라 "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기드온을 리더로 세우시는 장면이다. 첫째, 부름 받은 기드온, 불러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리더는 부름 받는 것이다. 둘째, 소심한 기드온, 과거의 모습만 생각하여 현재에 적응하지 못하고 미래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관점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가능하다. 셋째, 변화된 기드온, 변화되면 쓰는 언어가 달라지고 순종하게 된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자 성도들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오늘날, 역기능을 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교회 안의 많은 남자 성도들, 특히 아버지, 남편이라 불리는 가장들이 일어서야 한다. 그들이 무릎 꿇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난다.

사순절 Day-27	요한계시록 3:14~22

" 성도여, 결코 미지근하지 말라 "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선포한 말씀으로서 첫째, 예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약속만 한 것이 아니고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다. 둘째,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열심을 다 하셨다. 셋째,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 1) 믿음을 위해 힘쓰고, 2) 열심을 내고 회개하고, 3)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마음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넘어져도 예수 안에서 넘어져야 한다.

로비공사도 이제 많이 진행되고 마무리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그 동안 수고한 모든 시설관리부 집사님, 이신은 목사님, 그리고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이제 곧 새롭게 바뀐 본당 로비가 선보일 것이다.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사순절 Day-28	출애굽기 18:13~27

" 그대여, 혼자 못하니 위임하라 "

공동체 안에서 못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첫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신실한 자들이 잘 세워지고 팀웍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완전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믿고 신뢰함으로 맡겨야 한다. 셋째, 목표에 맞는 결과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힘을 내어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담임목사님께서 예배 후 성도들에게 기도부탁을 하신 것처럼, 어느 사순절보다 지금은 기도가 간절할 때이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리하여 회복, 치유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사순절 Day-29	사도행전 2:37~47

" 교회여, 세상의 가슴까지 뛰게 하라 "

교회들이 어떻게 세상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야 한다. 복음 때문에 세상이 설레야 하고, 죄사함의 복음이 교회에서 들려져야 한다. 둘째,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야 한다. 기적이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 셋째,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가 되야 한다. 마음을 같이 할때,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한다.

사순절 5주차 끝자락, 많이 지칠 법도 하지만 우리의 예배와 찬양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도 무릎으로 나아간다. 상한 심령, 연약한 육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서 간절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순절 Day-30	시편 1:1~6

" 다음 세대여, 죄의 세상에서 의인의 비전을 품으라 "

복 있는 사람들은 어둔 세상에서 의인의 길을 가야 빛난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은 어떤가?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우리가 잘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밖에 없다. 둘째, 시냇가에 심겨진다. 시냇가에 심겨짐은 곧 성령인데 열매가 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셋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다. 곧 예수님의 길이다.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토요 총동원 찬양으로 유초등부가 옷을 맞춰 입고 섰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다음 세대를 앞으로 이끌어 갈 이 유초등부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시냇가에 올바르게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기도한다. 오늘 영어예배부의 섬김으로 예배 후 아침을 대접하였다. 다이너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정성스레 준비해 준 영어예배부에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회복을 체험하는 영어예배부가 되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31	마가복음 11:15~18

" 성전을 새롭게 "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가 회복되고 청결해져야 한다. 첫 번째로 '성전에 들어가사' 둘러보신 예수님,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안 할 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안 할 때, 예수님은 진노하신다. 두 번째로, '성전은 내집이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섬기고 희생하시고 구속물로 오셨다. 세 번째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의 비전은 곧 세계 복음화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순절 마지막 주,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주간을 맞이한다. 로비공사는 어느덧 마무리 되어가는 중에 있고, 이번 주 중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전이 새롭게 되어가는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의 육신의 질병, 모든 영적인 일들의 회복, 하나님이 하심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한다.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사순절 Day-32	마가복음 23:37~39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평화의 도시, 기쁨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죄가 들어오면서 탄식이 되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첫째 예수님의 탄식이 있었다. 주님은 이 예루살렘을 품 안에 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품 안에 있기 싫어하였다. 둘째, 예수님의 내치심이 있었다. 38절에 '너희 집'이라고 명하셨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다. 주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죽음이다. 탄식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아픔과 탄식이 없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

다른 사순절 주간과 달리 이번 주는 경배와 찬양팀의 인도 없이 잔잔한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준비한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금 생각하며 예배를 준비한다. 오늘 예배 후 기도시간에는 특별히, 오늘과 내일 동안 있을 여선교회 연합수련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말씀 전해주실 이풍삼 목사(한인동산장로교회 시무)님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받을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간구하였다.

사순절 Day-33	스가랴 13:1~6

" 보혈에 죄를 씻으면 "

예수님을 싹, 돌, 샘으로 스가랴서에서 표현하고 있다. 첫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죄의 원인은 보혈로 속죄하고 더러움의 증상은 보혈로 정결케 한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다. 둘째, 부모가 할일. 하나님 앞에 자식이 범죄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면 칼로 베어버리듯 야단치고 가르쳐야 한다. 셋째, 내가 할일. 치유의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상처를 감추지 말고 고백하며,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속죄함 받고 더러움이 정결케 됨을 믿어야 한다.

교회의 큰 어른이시고, 교회의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하셨던 장정자 권사님이 오늘 새벽 소천하셨다. 아가페 소식지 표지에도 불과 두 달 전에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오셨었는데,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시게 되었다. 천국환송예배와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한다.

사순절 Day-34	이사야 53:1~9

"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을 통해 예언하고 있는 본문이다.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뱀,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들이 치유된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바로 서 있으면 원망, 불평보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심을 믿게 된다.

예배 후에는, 전날까지 있었던 여선교회 연합수련회의 강사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어제 새벽 소천하신 장정자 권사님, 교회 초창기 때의 다음 세대였던 아이들이 지금은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 나가는 일꾼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 바로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순절 Day-35	누가복음 23:44~49

"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준 놀라운 선물 "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두 선물을 이미 주셨다. 그것은 떡과 잔이었다. 그 떡과 잔에는 축복과 감사가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선물로 가득 찼다. 그 선물은 첫째 휘장이 찢어짐. 하늘 성소의 시작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임재의 감격의 표현이다. 둘째, 목표가 생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곧 이 땅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면 천국이다. 셋째, 가슴을 치게 곧 회개이다. 십자가 앞에서만 죄가 노출된다. 회개의 영이 부어진다.

사순절 6주간의 기간 중 유일하게 빵 간식이 없는 날이 있다. 바로 오늘이다. 성금요일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하루 한끼 이상 금식을 선포하며, 아울러 간식도 없는 날이다. 이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사순절 Day-36	요한복음 19:38~42

" 준비하라 "

안식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안식일을 준비함으로 맞을 때 축복이고, 감격이듯이, 죽음도 잘 준비해야 한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둘째, 예수님을 내 맘에 모셔야 한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말아야 한다. 숨기는 것은 두려움 때문인데, 사랑은 그 두려움까지도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다.

오늘 사순절 마지막 날, 교육부서 중 가장 어린 부서인 영, 유아, 유치부의 찬양이 있었다. 3개국어로 "예수 사랑하심은"을 율동과 함께 준비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상상이 든다. 오늘 담임목사님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직 예수"로 마무리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린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 오늘 아침을 정성스레 준비하신 시무장로님들께 감사 드린다.

“ 예수님만 따르는 신앙, 예수님 닮기 위해 목수가 된 장로님! ”

정민영 집사

분주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한가로운 토요일 낮시간, 교회로부터 30 여 마일 떨어진 롱아일랜드로 아가페 기사를 위한 탐방을 떠났다.

하이웨이를 한참 달리다보니 어느새 번잡한 건물과 도로들이 보이지 않고 한적한 마을로 들어선다. 봄을 재촉하듯 보슬비가 내리던 날, 아직은 마른 나뭇가지에 잎사귀는 무성하지 않지만 커다란 나무들이 늘어선 길을 따라 조용한 숲 속 마을 같은 곳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오늘의 탐방장소가 있다. 밤사이 비가 내린 탓에 공기가 맑으니 여유로움에 신선함까지 더한 풍경 좋은 곳에 위치했다.

오늘의 주인공은 김용생 장로님과 장로님의 작은 공방이다.

2년 전, 교회 바자회 때 주차장 한 켠에서 성경받침대와 건강 발받침대를 판매하시던 장로님으로부터 직접 만드신 수공예품이라는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던 기억을 되살려 탐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장로님 댁에 들어서니 현관입구부터 집안 곳곳에 범상치 않은 목재가구들과 여러 집기들이 즐비했다. 우선 교회 바자에 첫 선을 보였던 성경받침대와 건강 발 받침대가 당연 화제가 되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손으로 받치는 것이 불편하여서 어릴적 지게를 생각하니 지게모양을 흉내내서 만들면 되겠다 싶어 처음 만들어 보셨단다. 처음에는 투박했지만 두세차례 업그레이드가 되어 지금의 세련된 성경받침대가 완성되어졌다. 근래에는 작은 지게모양의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받침대도 만드셨다. 이것들은 다른 작업을 한 후의 자투리 나무로 만들수 있기 때문에 작은 조각나무조차도 잘 다듬어 모아둔다고 하신다.

건강 발 받침대는 권사님이 카이프로텍스에서 운동하던 발 받침대를 사진 찍어 그대로 재연, 높이 조절까지 가능한 받침대가

완성되었단다. 권사님께서 평소 다리에 쥐가 잘 나는데 발 받침대를 열흘 가량 사용하신 뒤로는 쥐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어찌보면 목수의 기본일 수도 있겠지만 눈썰미와 손재주가 탁월하신 듯 하다. 집 안 곳곳에 있는 가구와 선반, 손자들의 장난감 기차, 책상과 의자 (접이식 의자, 흔들의자), 책꽂이, 탁상용 길이 조절 책꽂이, 접이식사다리 의자, 코너선반, 화분받침대, 쇼파용 탁자, 쌀 뒤주까지 헤아릴 수 없는 생활가구들이 실생활에 사용되어지고 있었다. 사제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당신이 손수 만드신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가구였다.

장로님의 필요에 따라 고안되었고 때로는 권사님과 손주들의 요청에 의해 마음을 담아 만들어진 가구이다보니 실용성과 효율성에 더하여 정성과 사랑이 가득 묻어나는 작품들이 되었고 아이디어가 많은 가구들이 되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꽤나 많은 작품들이 있어서 목공예를 시작하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쭈어보았다. 5년여전 은퇴를 하시고 외손주들을 봐주기 위해 딸, 사위 가족과 함께 살게 되면서 손주들이 등교한 이후의 시간에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 헬스클럽도 가보았고, 악기를 배워보라는 딸의 권유도 있었다. 그런데 운동이야 평소에도 하던 것인데 굳이 헬스클럽까지 갈 이유가 없어 곰곰 생각해보니 예수님도 목수셨었다는 것에 마음의 감동이 왔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쓰임새있게 사용할 수 있는 목공예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한다.

그래서 2년전 뒷마당에 있는 쓰지않는 자쿠지를 활용해서 목공예 작업을 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드는 것이 초보 목수의 첫 작품이였다고 한다. 자쿠지를 다 허물고 새로 지으면 좋으련만 허가를 받는 여러 절차가 쉽지 않아서 자쿠지 기본골격을 건드리지 않고 공방을 만들려니 더 많은 난관이 있었고 섣불리 도전한 댓가를 혹독히 치르신 후에야 완성되었다고 하신다. 그렇게 시작된 목수로서의 2년의 시간동안 많은 생활가구들과 선교비 마련을 위한 작품들까지 만들어 내셨다니 놀라울 뿐이다.

책도 사서 보시지만, 혼자서 그림을 그려보며 많은 생각 끝에 도안을 만들어보고 때론 두세차례 실패도 경험하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낸다고 하신다. 인내와 끈기가 대단하신 듯하다. 무엇보다도 돋보이는 것은 못의 사용을 절제하고 나무에 홈을 파서 십자맞추기로 파트 연결을 하신 것과 목재의 마무리가 간결하고 깔끔한 것이다.

한참을 집안 곳곳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다보니, 공방이 더욱 궁금해졌다. 설레는 마음으로 뒷마당의 공방으로 나섰다.

공방을 만드시며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니 그제서야 공방문이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먼저 스치는 것은 코끝에 가득한 나무향이였고 작은 공간안에 여러가지 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이였다. 보통 가정집 차고의 반 정도 될듯 한 작은 공간이였다.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자리잡고 있는 툴들, 크고 작은 연장들이 나란히 나란히 줄지어 있고 짜투리 나무조각들이

선반에 모아져 있었다. 작업장 같지 않은 단아한 공방의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장로님의 정갈한 성품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정성을 다한 여러 작품들이 탄생되었다. 교회 바자를 위해 수개월 전부터 나무를 다듬고 자르고 수차례 반복되는 작업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쏟고 정성을 들여 만드셨을 과정들을 생각해본다.

예수님도 목수셨다지.. 라며 감화받았던 그 마음을 온전히 담은 정성이 중국어 예배부 헌금함이 되고, 새벽예배 헌금함이 되었고, 필요한 곳에 쓰임받을 여러 집기들이 되어 아름다운 제물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장로님의 그 손길이 참 귀하게 여겨졌다.

2017년 선교바자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여쭈어보았다. 평소 책상이나 탁자 위에 서류가 어지러이 정돈이 안되는 것을 감안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함을 만들었다며 보여주셨다. 역시나 장로님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서류함이었다.

수석장로님으로 교회의 일이 과중하신 때에 작업하실 시간이 있으시겠냐는 질문을 드리니 그 동안의 삶이 그래왔듯이 먼저 주어진 일에 우선을 두고 순서대로 해나가신다고 말씀하신다.

하루 24시간을 사는 것은 누구나 같기에 주어진 일에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구별하여 충실한 삶을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목수로서의 삶이 큰 즐거움이고 활력소가 되지만 교회중심의 수석장로로서의 삶이 당연 먼저임을 알려주신다.

교회중심의 삶으로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삶을 살다보니 자녀들을 살뜰이 보살피지는 못했지만 신앙안에서 잘 성장하여 준 것이 가장 감사하다고 말씀하신다.

권사님께서 소꼬리 곰국을 진하게 우려내 만든 만두국을 한그릇씩 비운 아가페 편집위원들은 마침 숫자가 딱 맞게 남아있더라는 스마트폰 받침대를 선물로 받아들고 목수장로님의 작은 공방 탐방을 마쳤다. 선교바자를 통해 매년 새롭게 선보일 아름다운 다음 작품들을 기대한다.

김명숙권사, 김용생장로, 신성재 집사, 신은하집사
재하, 재용, 재훈, 재은

상처받아 방황하는 영혼을 가슴에 품으면서

심석순 권사

하나님의 백성이 여기저기 흩어져있습니다.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져있는 성도들도 있구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갈급합니다.
사람의 모습에 실망하고 자존심이란 덫에 걸려
전도를 받아들이지만
선뜻 교회에 나오지 못 한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초신 자 시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의
언행일치가 안되는 것에 걸리고,
오랜 신자라면서 모범이 되지 못하는
모습에 상처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때 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며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 나는 넘어져 방황하고 있는 심령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 주어야겠습니다.
‘힘내세요! 다시 해봅시다! 사람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저는 오늘도 전도 대상자를 품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000이의 믿음을 회복시키시어
속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처음 만남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나요?’
믿지 않는 자에게 우리교회 자랑과 소개를 하며
같이 믿음생활 하길 권유합니다.
오늘 내가 뿌린 씨앗이 언제 어디에서 싹이 날지
모르지만 나의 사명은 부지런히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저에게 붙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라면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

박승희 집사 (박금 엄마)

유아세례는 하나님과 부모가 하는 약속이라는걸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매일 기도하고 금이에게도 이야기해줍니다.

나는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의 청지기일 뿐이니 금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하루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지키기로 다짐하지 않으면 이 선물이 너무 귀한 나머지 내 것인양 살아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게 10년만에 기적같이 자녀를 주셨고 그 기다림속에 평안함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신것 또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은 우리집 퀸즈장로교회에서 우리 자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 또한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금아~

아빠 엄마는 너를 신앙 안에서 이렇게 키울것을 약속한단다. “ 들어라. 걸어라. 거하라 ”

1 - 말씀을 들어라 - 쉐마 금아~

2 -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걸어라

3 - 말씀을 듣고 걷는 cycle 속에 거하라

아빠 엄마는 금이가 말씀을 듣고 걷고 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함께 할것이란다~

2017.04.08 / 토 / 아빠 엄마가~

(유아세례 받기 전 아빠가 금이에게 쓰는 편지중)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말씀으로 삶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도록 발버둥치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신 한 가족인 퀸즈장로교회 안에서 금이가 믿음으로 자라도록 함께해주실꺼죠?

“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라기를 ”

김려화 집사 (유진 엄마)

부활절 앞두고 저희 아기 홍유진은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진이를 저희 가정에 선물하신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유진이를 통해 엄마인 저에게 믿음의 성장을 주셨습니다. 나날이 자라가는 믿음생활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생활상에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고 기도할 때 마다 주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하겠다고 작정하고 교회에 따라 나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니까 결국은 안 되는 사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와서 좋은 교회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아부의 훌륭한 전도사님 및 교사들 덕분에 유진이는 매우 밝고 활발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님 말씀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엔 교회가 서먹서먹 했지만 지금은 밖에서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교회 주방에도 선뜻 들어가서 밥을 퍼주고 마치 내 교회라는 주인공 자세가 담긴 느낌이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살포시 싹이 틉니다.

유아세례 받게 한 이유는 앞으로 유진이를 퀸즈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성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유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바른 인생길을 걷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 보다 배로 힘들고 험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먼 훗날 부모로써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유진이를 지켜주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영을 심어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험한 인생길 골짜기에 빠져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믿고 항상 풍요로운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유진이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 그래 바로 이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

김숙화 성도 (조은 엄마)

남편과 나는 베이징에서 대학교 시절 때부터 사귀어 결혼하고 첫아이 용(조운-애명 / 조자룡-용이라 부른다)이부터 둘째 은이까지 이르러 22년이란 세월을 거친 “지루한 인연”입니다. 2004년에 우리 아들 용이가 태어났습니다. 정말 금이야 옥이야 온갖 정성과 사랑을 다 부어서 키웠습니다. 사랑을 너무 많이 준 탓인지 둘째에 대한 욕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난다고 해도 그만한 사랑을 줄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한편 일을 한다는, 시간이 없다는 핑게로 둘째에 대한 계획도 뒷전이였었습니다. 용이가 아마도 여섯살 되던 해던가 문득 질문을 해왔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동생이고 누나며 형들이 있는데 자기는 혼자냐고... 형제가 있는 애들이 부러웠었던 모양입니다. 외로운것도 있었던것 같았습니다. 다만 조건이 부가된 동생에 대한 욕심 - 동생이 있더라도 자기에 대한 사랑은 변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흔쾌히 응답은 했지만 일이 한창 바쁘던 시기라 엄두를 못냈습니다. 그래서 또 뒤로 미뤄진 둘째에 대한 계획이였습니다. 그러던차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를 겪게 되며 우리 여행업도 비수기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 은이를 임신하게 되였습니다. 참 우리 용이도 2003년도 베이징에서 사스가 터져서 난리하는 그 시국에 보게된 아들입니다. 아빠, 엄마가 종사했던 일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시기에 맞게 보내주신 크나큰 선물입니다.

임신 7개월째 부터 이민생활이 시작되였습니다. 몸도 많이 무거워져서 힘든 시기였지만 늘 곁에서 같이 해준 남편과 아들 덕분에 버틸만 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베이징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용이 아니였으면 나 혼자서 생활해 나갈 엄두도 못냈을 것입니다. 낯선 곳에서 혼자 몸도 아닌데다가 언어장애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큰 버팀목이 되여 준 것입니다. 마트에 가도 엄마 힘들다고 비닐봉지 하나 못들게 했습니다. 출산준비를 위해 사야 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모든 쇼핑이 아들 몫이였습니다. 너무 대견스러웠고 고마웠고 미안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드디여 수술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기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는 교회도 모르는 무신자였지만 두렵고 힘들고 약해질 때면 하나님을 찾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 하나의 기도에 응답해주셨고 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온 후 얼마간의 안정된 생활이 시작되어서부터 남편이 우리에게 적합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어떤 목사님 한분을 만났는데 그 분이 퀸즈장로교회에 다니는 안미영씨네 부부를 소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아들이 먼저 교회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커지는듯 싶었고 저러다 푹 빠지는건 아닐가? 보고있는 나는 우려도 앞섰습니다. 집에 와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적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둘이 약속이나 한듯이... 하지만 나는 선뜻 발길을 돌리지 못했고 마음을 쉽게 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듯 싶었습니다. 간혹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주옵소서’하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렸지만... 그러던 찰나 이양미전도사님과 황혜옥전도사님께서 심방을 오셨습니다.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심금을 울렸었지만 그때는 ‘아멘’이라는 말도 할줄 몰랐습니다. 어느 하루인가 남편이 교회영아부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이명옥전도사님과 여러 선생님들의 모습을 담은 내용이였습니다. 아가들에게 맞는 생동한 말씀, 표현과 찬송가들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영아부부터 시작하는거야!” 묵묵히 기다려 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로 향하는 모습이 우리가족의 일상이 되었고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도 쑥쑥 커갔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은이는 오빠 덕분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계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날 여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용이 하나를 키울때는 그저 멋모르는 기쁨으로만 양육했었는데 둘째인 은이가 태어나서는 기쁨이 ‘기대감’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지식과 마음 속 깊은 곳에 자신감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아이들을 양육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얀 도화지같은 아이의 마음에 급한 내 성격 그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한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연필을 드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통하여 은이의 인생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아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같이 부족한 부모에게 이렇게 멋지고 이쁜 두 아이를 선물로 주심을,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행복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유아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편 이 유아세례가 이 아이의 인생 여정의 끝날에 아빠, 엄마가 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한 표현이였음을 알고 감사하는 세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번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 날 우리 둘째 은이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이세현 집사 (주영 엄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뱃속열달을 지나고 산후조리 6주후 주영이의 처음으로 외출 한 곳이 성전이었다. 한번씩 첵업하기 위해 병원을 간적이 있는것 빼고는 처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바깥 구경을 성전에서 하게 되어 감사하다. 그리고 그 첫날에 세례를 받음으로 주영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첫 외출 신고를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의 생각으로 주영이를 계획하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학생부부인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준비시키고 천천히 우리에게 주영이를 허락해 주셨다. 이제 일년이 지났다. 한국에서 주영이를 품고 돌아오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요즘 너무나 건강하게 우리와 눈마주치며 웃는 모습은 쉽게 생각했었던 시작에서 알수록 점점더 복잡해지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거 같다.

이렇게 주영이를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주영이를 하나님을 잘 사귀어 가는 아이가 되도록 주영이의 이름처럼 주님께 영광돌리는 주영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음은 유아세례 숙제였던 앞으로 주영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다짐의 편지를 적어본다.

사랑하는 주영이에게

오늘은 주영이가 태어난 지 54일 되는 날이야. 오늘은 주영이 유아세례를 위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울지 다짐하는 편지를 쓴단다. 요즘 밤낮으로 너와 시간을 보내며 아침 세수 조차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이렇게 쫓기듯 편지를 쓰지만 엄마는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기를 것이야.

비록 서투르고 게으른 엄마이지만 하나님 알기를 부지런히 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엄마는 너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구나.

엄마는 소망한다. 무엇보다 엄마의 욕심이 너에게 강요되지 않길 바라고 너의 세상자랑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주영이가 되길 소망해. 아빠의 축복기도 안에서 우리집안의 믿음뿌리가 너까지 이어지며 너로인한 또 많은 자손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집안이 되길 소망해.

주영아! 무엇보다 너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알 수 있기를 원해. 먼저 세상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이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베푸는 주영이길 기도해. 물질적으로 풍족하길 기도하지만 그것 보다 하나님나라의 상급에 더 소망을 두는 주영이가 되길 바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삶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많아지면 좋겠구나.

또한 엄마는 너에게 많은 성경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 재미있는 말씀이나 지혜가 될 때가 있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성경은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의 삶에 큰 길이 되어주심을 너도 반드시 알길 바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 늘 말씀하고 계심에 귀기울일 줄 아는 주영이가 됐음 좋겠어.

주영아! 우리가 기도제목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나라를 기도하는 주영이가 되길바래.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내 힘으로 하려 하지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들이길 바래.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엔 반드시 하나님께선 너를 더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 주신 선물의 시간이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잘 이겨내는 강한 아들이 되길 바래.

끝으로 엄마는 주영이가 엄마아빠에게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아빠의 기쁨이 되어주고 있는 요즘은 주영이에게 바라는 것 없이 다 주고 싶구나. 하지만 많이 서투르고 부족한 우리가 행여나 너의 바람에 만족해 주지 못하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늘 감사하며 기쁘게 자라나길 바래. 사랑한다.

4. 8. 2017. 너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중등부 부활주일 스케치

To know Jesus is to follow him in his sorrows and to rejoice with him in his victories. As we see Jesus' ultimate "low" and "high" points of his life in the span of three days, we are called to identify with him in the full spectrum. The stigma is that our children's generation is spoiled and will enjoy Christ in His victories while abandoning him at the cross and in suffering; however, perhaps the opposite is true. Our children do feel the weight of their sin and in many respects do desire to follow Christ amidst hardships. The problem is not so much there but rather is that they don't know how to find joy and marvel in Jesus' victory. The Christian life is not following Jesus to the cross to find joy, but rather following Jesus to the cross because joy has been found. This Easter we spent time decorating eggs, as a small but powerful reminder that as Christians we are called first simply to find joy in the new life found in Christ before anything else.

- 종려주일 -

“ 종려 주일에 주신 주님의 복된 선물 ”

정혜경 권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군중들이 겉옷과 종려 나뭇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며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환호성이 귀에 들려오는 듯한 종려주일.

이 뜻깊은 주일 낮예배 때 주신 말씀에서 강조된 세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 둘째 예수님의 낮아지심, 세째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소망의 부르심이니 나귀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즉각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으로 오심같이 우리도 겸손해야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높여주시므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고 겸손한 성도가 되라는 복된 말씀이었다.(엡 4:1-16)

이 날 오후 예배는 성례예배로 드려졌는데 성찬과 세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복된 예식이다. 이 시간에 주신 축복의 말씀은 -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니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며,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런 축복이 오늘 세례받고 입교하는 분들과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기를 바라신다는 은혜로운 말씀(막 1:9-11)을 들으며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은 감격이 임했다.

이어서 세례식이 있었는데 학습자-25명, 유아세례자-20명, 입교자-3명, 세례자-20명이 이 예식에 동참했고, 새로 세례 받고 입교한 분들이 처음으로 감격스러운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복되고 은혜로운 축복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이 귀한 종려주일에 주님의 언약의 증표를 몸과 마음에 새긴 모든 세례, 입교자들에게 축하와 축복을 보낸다.

이분들이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또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고, 더욱 믿음이 자라서 감사와 기쁨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모든 교우들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밤 -

“ 죽음보다 강한 사랑의 승리 ”

어떻게 저런 일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그 분이 왜 채찍에 맞아 피를 흘리시며 조롱과 멸시 가운데 죄인처럼 흉악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쓰러지고 또 쓰러지며 고난의 길을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하고 외치던 군중들이 돌변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분노와 저주의 함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죽음의 잔을 마셔야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주님의 슬픔과 번민의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지한 군중들의 아우성과 비웃음속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그리고 몇 몇사람이 주님의 죽음을 지켜보기 위해 십자가 밑에 있을 뿐 죽음의 자리까지도 따라가겠다고 큰 소리치던 제자들과 베푸신 기적에 감탄하고 그를 따라 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며 회개한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외치신 그 절규가 가슴을 저리게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심신이 심히 목마르신 주님, 그러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 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아버지께 그의 영혼을 부탁하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채 운명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고난의 밤에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목마르다’(요 19:28)고 우리 모든 사람과 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기 위해 친히 목마르시며,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끝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청년들의 헌신과 찬미의 제사 ‘가상칠언’이 주님의 보혈을 기리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이 주님을 기쁘시게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떡과 감사의 잔을 마시며 주님의 죽음보다 강하고 온 세상 보다 더 큰 사랑을 확인하며 복된 새 언약을 가슴에 새겨봅니다.

그 귀하신 몸이 찢김으로 무거운 성소의 휘장을 친히 찢으시어 지존하신 하나님께 언제라도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며, 목적없이 방황하던 자녀들에게 소망과 사명을 주시고 회개의 영을 주시어 주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제는 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지 알것 같습니다. 바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고귀한 희생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어둠과 죄악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연약한 형제, 자매를 돌보며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자신을 송두리채 주신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특집

교역자 가정 이야기

'날마다 성경을 보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니 우리보다는 더 거룩한 삶을 사셔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그분이 지켜주실 텐데 꼭 기도를 해드려야 할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교회의 여러 사역으로 늘 분주한 교역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를 섬기며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하는 교역자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 교역자들도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육체적으로 지치며, 영적으로 약해질 때가 반드시 있다.
이런 경험들은 매우 일반적이고, 심지어 너무 자주 찾아온다. 그래서 성도가 목자를 보호하고 기도하고 축복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 두번째 특집은 부목사님들과 다민족 예배부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의 가정 이야기를 들어본다.

" Soli Deo Gloria! "

김도현 목사(Rev. Peter D.Kim) 가정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hat a blessing it has been to serve here at my home church KAPCQ, as the English congregation Pastor for the past 7 years. Time surely flies, especially if you are serving as a Pastor at our church! It feels like just yesterday that God called me back home after having been away from NY for 17 years, studying in college and working as a Design Engineer at General Motors in Michigan. In December 2009, I had graduated from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in Chicago and had just flown back to NY briefly to greet Rev.Chang. I had accepted a position in San Diego as an EM Assistant Pastor. But God had other plans in mind. Rev.Chang shared that he believed God was calling me to come back here to KAPCQ to serve. Out of respect for Rev.Chang, I told him that I would spend some time praying and fasting over the decision but in the back of my mind, I thought there's no way that's going to happen. But I learned again that I'm not the one in control of my life. God is the one who guides and directs our path. After praying and fasting in the weeks to follow, I sensed God's leading to come back home and shepherd the flock at QPEM. On a side note, it's also very difficult to say no to Rev.Chang!

I began serving full-time here at KAPCQ on January 2010. It's then that I met my soon to be wife Cathy at QPEM. She also grew up at our church. We were just 3 years apart in the Education department but we did not know one another growing up. Our families did know each other though and I later found out that one of my uncles actually gave Cathy her English name when she was born! Cathy and I got married in August 2010, just 8 months after we met. We began the journey together in ministry serving QPEM ever since. Words cannot fully express the sacrifice, support and love that my wife has poured out for me and the ministry. For to have a healthy and fruitful ministry, alongside every Pastor, there needs to be a "woman who fears the Lord" as King Lemuel writes of in Proverbs 31. I praise God for blessing me with a woman who truly fears the Lord, one who is "far more precious than jewels" (Prov 31:10).

God has overflowed His blessings on our family by giving us two wonderfully vibrant and healthy boys, Caleb (4 years old) and Luke (2 years old). No matter how stressful and tiresome ministry can get, my two boys bring a joy and rejuvenation to my soul every night I come home. It's funny to hear my 2 year old Luke tell me every time when I step through the doors to take my church clothes off and put my home clothes on! For to them, I'm not just a Pastor of a big church, I'm their daddy and the person who gives them rides up and down! I am thankful and eternally blessed to raise up my two boys here at KAPCQ, that they would learn abou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that one day, they would come to know Jesus personally and strive to love and glorify Him in their lives.

Our family prayer requests are:

1. To faithfully serve God and our church in proclaiming the glory of Jesus Christ to the ends of the earth.
2. To disciple our children and have them come to know Jesus Christ personally as their Lord and Savior.
3. To glorify God and honor Him in our family life, work life, and personal life.
4. Salvation for family members that do not know Christ.
5. Health of our supportive and loving grandparents in NY and NJ.

We thank our loving KAPCQ and QPEM family for your prayers and for the genuine friendships and support as we co-labor together in God's kingdom work.

Soli Deo Gloria!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퀸즈장로교회에서 영어예배 목사로서 7년동안 섬길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이곳에서의 삶은 분명 다른곳에서 보다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떠나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GM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17년 만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뉴욕에 돌아왔던 그 순간이 바로 엊그제 갔습니다.

2009년 12월, 저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장영춘 목사님께 인사드리기 위해 잠시 뉴욕에 왔었습니다. 그 때, 저는 사실 샌디에고에 있는 한 교회의 영어예배 부목사로 섬기게 될 예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퀸즈장로교회를 섬기도록 다시 부르셨음을 믿는다고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 순간에 바로 못하겠다고는 말씀 드릴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저는 퀸즈장로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제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주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영어예배를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퀸즈장로교회를 풀타임으로 섬기게 된 것은 2010년 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우리교회에서 자라났고, 교육부에서 저와 3년차이였지만, 그 때까지 서로 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아내의 가족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제 삼촌 중에 한분이 아내가 태어났을 때 아내의 영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만난지 8개월 만인 2010년 8월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함께 영어예배 사역을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내가 저와 사역을 위해서 쏟아부은 사랑과 격려, 희생이 얼마나 큰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건강하고 열매가 풍성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주를 경외 하는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잠31) 그런면에서 저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아내를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잠 31:10)

계속 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건강하고 활기찬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갈렙 4살, 루크 2살).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면, 그 날의 사역이 아무리 힘들었을지라도 두 아들은 언제나 저에게 다시 새 힘과 큰 기쁨을 줍니다. 둘째 아들 루크는 제가 들어올 때마다, "교회 옷은 벗고 집의 옷을 입으세요"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저는 대형교회의 목사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 주어야 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퀸즈장로교회에서 두 아들들을 키우게 된 것과, 그들이 이곳에서 자라나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 그리고 어느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알아가며 삶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한량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의 기도제목은:

1.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끝까지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것
2.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
3. 가족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개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4.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의 구원
5. 우리 가족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동역하는 가운데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퀸즈장로교회와 영어예배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Soli Deo Gloria!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을 이루어가요 "

김재형 목사 가정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을 소개 합니다.

결혼한지 이제 8개월 째 되는 저희 가족은 저 김재형 목사, 제 아내 김애진 사모 이렇게 둘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김정환 집사님, 어머니 김미자 권사님께서 같은 교회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저는 15살 때 이민을 와서 35세가 된 지금까지 퀸즈장로교회 교회에서 자라나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퀸즈 장로교회는 저에게 있어 집과 같은 곳 입니다. 15살이라는 완전히 미국사람이 될 만큼 아주 어리지도 않고 또 완전히 한국사람이 될 만큼 아주 많지도 않은 나이에 이민을 오게 되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할 때에 교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늘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유,초,중,고, 청년부를 계속 옮겨 가면서 섬기며 훈

련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섬기고 있는 부서는 초등부, 교육부, 일반행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청년부를 섬기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아내가 회장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저의 부족한 점들을 여러모로 채워주며 섬겨주는 모습, 그리고, 매사에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또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항상 그늘 없이 밝게 사는 모습을 보고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제가 먼저 아내의 생일날 첫번째 데이트 신청을 하고, 또 몇번의 데이트 후에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오랜 시간 함께 지내지는 않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점점 더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따뜻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축복해 주시고 많은 조언들과 도움을 주신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의 기도제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는 것, 저의 섬기는 사역과 아내의 직장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또 우리 가정에 예쁜 자녀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평안이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히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쁜 아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와 하나님께 기쁨 올려 드리는 가정

오인수 목사 가정

저희 가족은 저 오인수 목사, 사랑하는 아내 오지현 사모, 큰 아들 오믿음, 작은 아들 오소망 입니다. 베이사이드에 장모님 이영숙 집사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혹시 2011년 중고등부의 '시와 찬미의 밤(O2)'이 기억 나시나요? 멋지고 예쁜 중고등부 학생들이 뮤지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었습니다. '기대'라는 제가 썼던 극이었는데 함께 섬기며 올렸던 것이 계기가 되어 퀸즈장로교회로 제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가 신학교 마지막 학년 때여서 필라델피아에서 퀸즈로 주말에 올라와서 교회 5층에서 머물며 섬겼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처음 드리며 느꼈던 하나님의 강한 임재, 성도님들의 밝은 웃음과 뜨거운 기도, 그리고 제가 길치인 덕에 5층 방까지 여러번 길을 잃고 겨우 올라갔던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퀸장에서의 첫 사역으로 청년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청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인생에 정말 중요하기에 지금까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귀한 경배와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섬길 기회를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전폭대원들과 함께 전도폭발을 섬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도목사로서 퀸장의 자랑인 선교회원들 한 분 한 분을 곁에서 보는 즐거움도 엄청납니다. 주보를 만들며 우리 교회의 역사와 현재를 배웠고 성경문답서 문제를 제출하며 말씀을 향한 성도님들의 열정에 놀랐습니다. 퀸장에서 첫 설교는 한글학교 경건회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 들어주셔서 큰 용기를 얻었었고, 지금도 성도님들의 아멘 소리 덕에 새벽 예배나 다른 여러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아빠라고 대답합니다. 그 바쁘신 중에도 한번도 새벽기도를 거르지 않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도하시는 아버지와 전도에 열심이신 어머니를 허락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가장 예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아내라고 대답합니다. 전지현보다 예쁜 아내 이지현을 필라델피아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예배 때 찬양 인도하다가 오른쪽 앞에 앉아있는 한 자매를 보고는 기도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와 소망이는 우리 가족의 큰 기쁨입니다. 사순절에 할머니와 앞에 나와 엎드려서 '주여~' 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이가 궁금하시지요? 이미 있습니다. 아내 뱃속이 아닌 Haiti에요. 믿음이 소망이가 돌을 맞이할 때마다 Compassion 단체를 통해 아이를 후원하고 있는데, 소망이 돌 때 만난 아이의 이름이 Love 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는 가족,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가족, 하나님께서 태초에 가족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며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부르심 받은 선교사역과 네 명의 동역자 "

송요한 목사 가정

저와 아내는 행복하게 벌써 18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에 살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내는 저같이 우즈백에서 태어났고, 교포 4세로 같은 고려인 마을에 살았습니다. 제가 18살 때 교제를 했고, 약 칠년이 지나 제가 신학교를 졸업 한 후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는 것은, 결혼 당시 저는 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정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혼식을 할수가 있었고, 결혼식이 끝난 후 우리가 모스코바의 붉은광장으로 사진을 찍기 위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때 보니 많은 경찰들이 어떤 행사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간 실망하고 돌아가려할 때 한 친구가 경찰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이 빨리 가서 사진을 찍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붉은광장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때 러시아의 심장과 같은 붉은 광장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우리만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아마도 러시아 대통령도 이런 사진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일은 정말 우리 가족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반드시 선교사역에 부르심을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선교사역을 위해 우리 온 가족은 러시아, 우즈벡, 한국을 거쳐 이제 미국 뉴욕에 살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세 축복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자녀 세 딸입니다. 늘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딸들이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벳, 안나, 마리아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묵묵히 따르며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선교사로 많은 것을 자녀들에게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없이 그냥 순종하며 우리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러시아어권 예배 때, 바이올린과 컴퓨터, 주일학교를 섬기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으로 많은 것을 줄 수가 없었지만, 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장성한 딸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처음부터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사역을 위해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뒤에서 늘 저를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네 명에 사역 동역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들도 한 주님이 주시는 목적에 따라 한 팀, 한 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引导韩中长老教会大家庭的神
퀸장이라는 큰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중국어예배부의 부흥

陈玉捷传道 (Pastor Yu Jie Chen) 가정

感谢主，师母（陈戴淑君）与我结婚17载，育有三个儿女。大儿子陈承恩Dillon），二女陈恩惠Grace）和小儿子陈奉遣Siloam）。

我们是从2014年的11月份来到我们韩中长老教会的。2014年10月，神清楚给我话语带领我们离开之前所服事的教会。去哪儿？不知道。当时与师母交通分享的时候，只有三个概念，要嘛神带领我去神学院继续接受装备，要嘛回中国宣教，或者神带领我去另一间教会牧会。虽然不知道去哪？做什么？但是离开的命令是非常清楚的。离开后，我和师母去神学院与一位属灵的长辈郝万以嘉师母交通，一起祷告，寻求前面的方向。正好当时，我们的主任牧师金星局牧师和神学院的金京来副院长分享我们教会要开展华人事工，需要一位中国传道人。当我和师母离开神学院后，金京来牧师就和郝

师母提起韩中长老教会这事，郝师母就说，正好玉捷在找事奉的工场，要不要让他试一试。金牧师就说，好。感谢主！我的电话就响了。当时，我去了几家不同的教会崇拜，也去讲道，有两间教会邀请我加入他们的教会一起服事，但是我的灵里面就觉得这不是神的带领，所以也就没有答应。但是，当金京来牧师和郝师母打电话给我的时候，我一听韩中长老教会中文堂事工的需要，心里面就一闪而过的感动，非常平安、清晰，就是这个了。圣灵给我心里的平安与感动非常的清楚，就是这个了。不知道为什么，一听完韩中长老教会的中文堂事工，我心里面是极其的兴奋。感谢主，经过两次与主任牧师和长老的面谈、祷告，双方都确定这是出于神的。就这样子，神把我们 一家带到了韩中这个大家庭，开始了中文堂的事工。

因着神的恩典，圣灵的动工，我们中文堂的事工发展的很快。感谢赞美主！目前登记的有900人，稳定聚会的有约300人。每周二晚上，我们都有查经班、新朋友班和EE培训班；每周三晚有祷告会；每周五都有不同的团契（弟兄团契、两个姐妹团契和青年团契）；每周六社区布道；每周日除了崇拜，还有主日学和门徒训练；另外，每个月都有一次小组的聚会，目前中文堂有7个区38个小组。

在这两年中，看到上帝奇妙的作为在我们当中。祂感动带领了很多人来到我们的教会，很多人的心已经被主预备好了，极其渴慕神的话语，极想认识神。因此，来到我们教会而信主的有很多人。神不单只带领未信主的人来，也带领了很多有心服事耶稣的人来到我们教会，加入中文堂的事奉团队。我们目前有很多爱主，愿意委身事奉的弟兄姐妹。实在是为了这么多可爱、美丽、乐意摆上的弟兄姐妹向神献上感恩。

目前中文堂需要更火热的祷告，因为哪里有神的事工，那里就有魔鬼的攻击与破坏。求主在中文堂中兴起更多的祷告勇士，为了神的国度，教会的复兴，信徒的需要向神扬声祷告。求主赐下谦卑、温柔、彼此相爱、合而为一的心，使神家坚固，神的道兴旺，神的名被高举。愿主在这末世的日子里，复兴祂自己大能的作为在我们中间。

哈巴谷书 3:2a “耶和华啊，我听见你的名声（或作：言语）就惧怕。耶和华啊，求你在这些年间复兴你的作为，在这些年间显明出来；”

할렐루야, 저는 아내(첸따이 수 쥔)와 결혼한 지 올해로1 7년이 되어 슬하에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 첸성은(Dillon), 둘째는 딸 첸은혜(Grace)와 막내아들 첸펑챈(Siloam) 입니다.

저희 가족은 2014년 11월에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래 섬기고 있던 교회를 떠나라는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디를 가야하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아내와 얘기를 나누던 중 세가지 방향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신학교로 인도하시어 영적으로 더 무장하거나, 중국으로 돌아가 선교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인도하셔서 목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몰랐지만 떠나라는 명령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신학교로 가서 신앙의 선배님이신 Hao wan yi jia사모님께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구하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침 그 당시에 김성국 담임목사님께서 신학교의 김경래 부원장님과 중국예배부를 설립하시려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국인 목회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Hao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침 위지가 목회할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가서 한번 해보게 하는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고, 김경래 목사님께서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몇개 교회로 가서 예배드리고 강단에서 말씀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곳에서 저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여 섬기기를 제의했지만 저는 마음 속에 왠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향이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경래 목사님과 Hao사모님께서 전화 주셨을 때 퀸즈장로교회의 중국어예배부 사역의 필요를 듣고 마음에 스쳐가는 감동과 함께 아주 평온하고 명확하게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던것인지 모르겠지만 퀸즈장로교회의 중국어예배부의 사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과의 두 번의 만남과 기도후 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퀸즈장로교회라는 큰 가족의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셨고 중국어예배부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중국어예배부의 사역은 아주 크게 부흥발전 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등록교인은 900여명정도가 되고 안정적으로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이 300여명 정도가 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성경공부수업과 새신자수업과 전도폭발훈련등을 하고 매주 수요일밤에는 기도모임이 있고 금요일에는 여러가지 부서모임(형제모임, 두개의 자매모임과 청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노방전도를 나가고 주일마다 대예배와 주일학교와 제자훈련 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마다 한번씩 그룹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어예배부에는 7개 구역과 38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또한 저는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운데 행하신 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오게 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예비하시어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려는 많은 형제자매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예배부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기꺼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랑스럽고 귀하고 기꺼이 섬기는 형제자매들을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박국서 3:2a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 여선교회 연합 수련회 -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

4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4월 12일 저녁 수요 예배까지 여 선교회 연합수련회가 있었다. 강사 목사님은 한인동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풍삼 목사님이셨다.

로비에 들어서자 마자 여전도사님들이 기분 좋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본당 안에 들어서니 각 선교회 별로 앉을 수 있도록 이름표도 꼽아놓고, 선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의 준비가 있었음이 느껴졌다.

이풍삼 목사님은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 선교회원들에게 개회 예배부터 폐회 예배까지 귀한 메시지를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늘 대답할 것을 준비하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또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죽을 때까지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하였다. 때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 우리가 사는 이세상은 마취국이다. 이러한 마취국에 사는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적인 잠을 잔 것처럼, 우리는 졸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고, 온 맘 다해 기도해야 한다.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더욱 강조하였다.

지하 친교실에서는 각 선교회마다 둥근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다양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첫 날 제일 먼저 각 테이블에서 자기소개와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는 은혜의 시간으로 시작되었다. 또, 초대손님 장미선씨를 초청하여 최윤희 권사님의 “최윤희의 여성토크”가 있었다. 균형잡힌 여성생활이란 어떠한지에 대해 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최경선 권사가 진행하는 게임순서도 있었는데, 선교회 회장들에게 문제를 출제하여, 맞추는 회장이 속해있는 선교회가 맛있는 간식을 획득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다. 그리고, “나의 남은 시간은?” 이란 제목으로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남기는 편지를 쓰는 시간도 있었다. 정말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촛불 예식” 이란 순서를 진행하시며 각 회장단들을 통해 촛불을 점화하시고 각 선교회 테이블마다 전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동안 은혜의 말씀으로 따뜻했고, 맛있는 점심도 서로 도와가며 서로 챙겨주며 훈훈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식탁이었다.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더욱 아름다운 수련회였다.

생애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황은애 권사

사랑하는 아들 태규와 딸 진선에게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 말씀과 같이 정말 세월이 날아가는듯 이 엄마의 나이도 칠순을 향하고 있구나. 어느새 너희들도 믿음의 가정 이루고 어른들이 되어 이 엄마에게 손자 셋, 손녀 셋을 안겨줘서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며느리 정아도 사위 병종이도 모두 신앙생활 잘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여줘서 이 엄마에게 큰 기쁨이구나.

이 엄마의 삶은 그리 평탄하지는 못했다. 이 엄마가 한 살때,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고 1학년때 너의 할머니는 천국에 가셨으니 이 엄마의 외로움과 슬픔이 이 퀸즈장로교회에 와서 진선이를 낳고부터 믿음을 가지므로 예수님으로 내 마음에 채워졌고, 너희를 키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 알게되어 교사로 봉사하며 너희들 데리고 교회를 가는 것이 이 엄마의 행복이었단다. 교회갈 때 태규는 어릴때부터 양복을 입혔고 진선이는 드레스를 입혀 항상 예수님 만나러가는 단정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감사하며 키웠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과 바꾸지 않았다.

이 엄마가 이세상을 떠날때 너희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며 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잘 지키며 바른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을(현지, 민지, 찬이, 인기, 인애, 현기)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며 교회를 사랑하며 목사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하며 세상과 구별된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되거라

이 엄마가 너희들 가정에 말씀 하나 선물하고 떠나고 싶구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이 말씀을 너희들 가정에 가훈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하고 교회 가는 것 먼저하고 주의 일하는 것을 세상일보다 먼저하면 무슨 일에든 플러스해주시는 형통한 가정들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 가족 모두를 통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가정 되기를 바라며 너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기를 기도한다.

저의 천국 환송 예배에 불러주기 원하는 찬송은 (425)장이며, 성경은 (시편 39편 7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 39:7)

최효진 권사

48년간의 이땅에서의 시간을 돌아보니,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바르게 잘 키워주신 아버지와 어머님, 그리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신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사랑이 생각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시던 할머니 의 기도와 찬송소리, 할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들이 힘들때면 많이 생각났습니다. 이제 곧 그리운 할아버지 할머니를 천국에서 뵐것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뵙고 싶습니다.

자라오면서 어머님의 용기와 격려는 큰 꿈을 꾸게 하셨고, 아버지로 부터는 늘 현실생활과 실패에 대한 준비를 배우며 겸손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신 아버지, 모든것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는 어머니,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분의 딸로 태어나게 해주신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천국에 제가 먼저 가더라도 영원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종린, 채린 아빠,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것들이 참 감사해요. 지금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기도했던 우리의 소소한 기도들을 참 많이도 응답해 주셨네요. 아직도 서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은데,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모난 부분들이 많은데, 함께할 시간이 길줄 알았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너무 짧고 아쉬움이 남네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안전한 쉼터가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늘 당신의 편이 되어주지 못했던것이 미안해요. 당신은 저에게 절대로 부족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나의 욕심을, 나의 불순종함을, 나의 게으름을, 나의 형편없음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이 주신 거울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당신과 함께 잠시사는 이땅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 잠시 헤어져도 천국에서 금방 다시 만나요. 기다릴께요. 그리고 우리 애들에게 내몫까지 많이 사랑해줘요. 천국에서도 응원할께요.

사랑하는 종린아, 엄마 딸로 만나기까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종린이의 일생을 두고 엄마는 기도했단다. 그 기도는 엄마가 천국에서 종린이를 만날때까지 계속 될거야. 하나님께서 종린이의 일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한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곱번 여덟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고 용기있게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때 칭찬받고 안길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단다. 종린이때문에 엄마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게 많았고 행복했다. 엄마가 부족해서 종린이를 많이 이해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부족한 엄마에게 딸로 와줘서 참 행복했어. 엄마는 이제 천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종린이와 함께 하시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 착한 우리 큰 딸. 천국에서 곧 보자. 종린아, 엄마대신 아빠와 채린이를 잘 부탁해.

사랑하는 채린아, 엄마는 채린이를 만나기위해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채린이는 하나님이 엄마아빠에게 주신 기적이였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있냐고 생각될때 거울을 보면 하나님의 작은 기적을 볼 수 있어. 하나님께서 채린이를 통해 큰 사랑과 기쁨을 듬뿍 주셨단다. 엄마는 우리 채린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라면 성공도 실패도 다 감사한거야. 너무 결과에 매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을 꼭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엄마는 천국에서도 너무 행복할것 같아. 엄마랑 곧 천국에서 만나. 엄마가 예쁜 채린이를 꼭 안아줄께. 채린이는 하나님이 엄마에게 주신 큰 상이였어.

채린아, 언니를 잘 부탁해. 사랑해 우리 예쁜 딸...

홍한나 권사

부족함도 실수도 많았던 인생이었지만,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깨닫고 참 감사했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설때, "내 딸아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말씀하시며 안아주실 주님께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 길지 않았던 이 세상 나그네길을 걸어오는 동안 제가 사랑했고, 또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께 이 글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엄마…

내 생명의 근원이었던 당신의 손길이 지금 이순간 가장 그립습니다. 새벽녘이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당신의 기도소리에 먼통이 터오는 걸 알았고, 당신이 무릎에 안고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철없던 시절엔 혹독하게만 여겨졌던 기도와 말씀 훈련이 세상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사랑의 가르침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그립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지금처럼 벚꽃이 찬란했던 4월,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만나 한 가정을 이루기까지 우여곡절도 참 많았는데, 어느새 20년을 지내오면서 믿음의 동역자로 평생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적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도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온 당신으로 인해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장으로서 힘든 시간도 많았을텐데, 나는 내 앞가림이 급하고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이유로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고민, 가족 몰래 흘렸을 당신의 눈물을 돌아보지 못한게 가슴을 칩니다.

사랑하고 미안합니다. 당신의 남은 삶, 더 많은 섬김과 헌신이 있는 귀한 삶을 살다가 이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사랑하는 두 딸, 보라 보영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보석같은 너희들로 인해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너희를 위해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고, 온갖 뒤치닥거리로 힘들때도 너희들의 환한 웃음 하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었단다. 예쁘고 착하고 사랑스런 너희들 엄마여서 정말 감사하다. 엄마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붙드시길, 너희를 위한 엄마의 기도에 은혜와 자비로 응답하시길 저 천국에서도 빌께. 너희도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단다. 그리고, 너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게 하여라.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암송하려무나.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단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란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한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걸 능히 이겨낼수 있을꺼야. 서로 사랑하며 우애있게 지내렴. 아껴주고 부족한 면은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리고 그 형제애를 성도와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더 넓혀가기를 바란다.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알게 모르게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던 분들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시작인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끝으로, 저의 천국 환송 예배에서 불러주기 원하는 찬송가는 (325장, 360장, 412장)이며, 성경은 (로마서 14장 7~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롬 14:7~8)

퀸즈장로교회
믿음으로 사는 교회
- 하나님 중심
- 말씀 중심
- 교회 중심

" 사순절 삼겹줄 기도짝 "

황은실, 김승희, 김서희 청년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년선교회 삼겹줄 황은실, 김승희, 김서희 입니다.

처음에 삼겹줄 기도짝이 되고 서로 응원하며 꼭 개근을 하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육체적인 피로와 일적인 피곤함으로 힘들기도 했지만 사순절 새벽기도를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새벽마다 깨워주시는 힘으로 나갈 수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는 저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였습니다. 각자의 기도를 하고 또 서로 중보기도하며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들은 서로 기도제목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청년들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 교회학교 스케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 하니 내삶에 참된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2017년도 교육부에서는 부활주일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부장선생님과 전도사님들이 각부서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맞춰 행사들을 준비하셨습니다.인형극부터 달걀 데코레이션까지 바쁜 일정 가운데도 각본에 연출에 인형을 손수끼고 아이들에게 부활의 참 의미를 전달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 영아부 - " 부활절이 무슨날이에요? "

어린아이들의 눈에 비친 부활절은 어떤날일까요? 아이들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Easter egg hunts event에 초대되어 egg hunting을 재미 있게 하고 나면, 많은 기관들이나 학교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절 기간동안에는 학교들이 방학을 하여서 많은 가족들이 vacation을 계획하고 다들 휴양지로 떠납니다. 휴양지에 다녀온 아이들은 부활절의 의미는 모르고 단순히 vacation가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아부에서는 정소연 집사님이 준비해 주신 대본으로 '부활절이 무슨 날이에요?' 라는 인형극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영아부 아이들이 알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 조정숙 집사님

- 유치부 - "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

유치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라는 제목으로 인형극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라고 질문하면 몇몇의 아이들은 '우리의 죄 때문에요'라고 대답을 할 줄도 알고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스런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사를 통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셔서 잠시 슬퍼했지만 약속하신 말씀대로 삼일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부활절 인형극이었습니다. Jesus is Alive라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 계연란 부장 권사님

- 유아부 - " 삐약이의 부활절 "

해를 바꿔 가면서 한해는 인형극으로 한해는 교사들이 직접 연극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올해는 " 삐약이의 부활절" 이라는 제목으로 예쁜 구름이와 백합 그리고 병아리 (삐약이)와 나비 인형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그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직접 만든 예쁜 인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아부 아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길 기도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 차동미 부장 권사님

- 유년부 - " Jesus is Alive ! "

유년부에서 부활절을 맞아 특별한 인형극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영어 인형극이라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 같지 않은 주인공이 교회 가기 싫어 주일날 옷장에 숨어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꿈에서 사탄이 너무 기뻐하며 반겨 주었는데, 주일 학교에서 배운 복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다시는 교회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우년부 아이들과도 같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같이 Jesus Is Alive를 찬양했습니다. 우리 우년부 아이들이 인형극에 푹 빠져 다시 한 번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 김근희 부장 집사님

三代家庭见证 우리 집- 3대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 陈明昊 (Chen, Minghao 형제)

"神爱世人，甚至将祂的独生子赐给他们，叫一切信祂的，不至灭亡，反得永生。因为神差他的儿子降世，不是要定世人的罪，乃是要叫世人因祂得救。" – 约翰福音3:16–17。阿门!

这句话深深烙印在我的脑海中，下面我就谈谈认识神的经历和感想。我很早以前就不相信进化论，而是一个坚决支持创世论的人。虽然知道这个世界上有位神，祂创造了整个宇宙万物和地球上的一切事物，但是，我并不知道祂是谁，更不知道该如何认识祂。

在我很小的时候，我模糊的记得我奶奶信主，她时不时会带我到教堂做礼拜，那时候也不知道他们在干嘛，就觉得很庄严，并且也不知道信主代表着什么。随着我年龄的成长，我们家经历了很多磨难，危险和痛苦之后，我和我母亲一直在终日惶恐不安中度过，得不到一点点的平安与喜乐。我甚至患上了抑郁症。在我20多岁的时候，我母亲提议让我去学心理学，好让我能够调节自己。在学习的过程中认识了一位姐妹，她第一眼看到我，就说神拣选了我，我当时一直不明白是什么意思。她坚持要送我一本圣经，我最觉得亏欠的是，我后来把圣经弄丢了。但神并没有离弃我，一直给我机会重新生活，更新我的灵魂。在朋友和家人的帮助下，我带着我妻子和孩子来到了美国。离开家之前我还做了一个梦，梦里神对我说"你要信我！"我问祂说"你是谁"，祂说"我是上帝"。早上一醒我就把这个梦告诉了我母亲，我说我到美国之后一定要好好信主，一定要做个有信仰的人!

刚到美国没多久，在找工作的过程中，神又一次把祂的信徒派到我身边，在这位姐妹的推荐下，我来到了韩中长老教会。但那个时候我的抑郁症和重度失眠一直困扰着我，我什么都不想做，虽然说好好信主，不过一直坚定不下来。因为初到美国，工作和压力，我和我妻子也经常争吵，那时我感觉我们的心越来越远。这些，主都看在眼里，祂怜悯我，爱惜我，呵护我，并没有因为我曾经的自残，暴力而惩罚我。祂是用一种极其温柔，慈爱的方式来管教我！指引我！还加给我更多的信心，主知道我的所有需要！在这样的关怀下，我又一次的重新站起来，努力参加教会的活动，当然了，周日崇拜是必不能少的。我还记得我第一次用心听诗歌的时候，竟然流下了眼泪，是感受到了被圣灵充满，激动的眼泪！渐渐的我也会对我妻子讲一些关于神的事情，祂怎么创造，怎么把祂唯一的独生子赐给我们这些罪人，耶稣基督为什么要代替我们受刑罚，被钉于十字架受死！刚开始我妻子也听不懂，也不太愿意接受这些。所以我每次参加周日崇拜的时候，都会为她祷告，求我主用圣灵感动她，也更新她的灵魂。后来，神应允了我的祷告，我妻子也慢慢会主动问我一些关于神的问题，我也会用有限的认识给她讲解！她终于有了变化，现在我妻子也会主动到教会参与活动，在主里和大家相交，用心的去读圣经，祷告。

主因怜悯我，爱我如同爱所有世人一样，应允了我所有的祷告。我们一家三口是先来到美国的，那时候，我母亲还没有到（因为家里有很多麻烦事），我每天向天父和主耶稣迫切祷告，求祂保守我母亲一切顺利，赶紧脱离危险的环境，来到这边与我们团聚，我也答应主，一定会把我母亲带到我们韩中长老教会。我母亲来到美国的时间也很特别，签证通过是在感恩节，顺利来到，是在平安夜，这使我更加坚定了信心。这一切的一切，全是主的安排。这是谁都不能否认的!

现在我们一家三代人，一起到教会参加活动，一起用心崇拜主。现在我们能更加柔和的对待彼此，我也更能平和的处理家里的关系了！这全都要感谢主，感谢祂做的奇妙之功！如今，我的抑郁症有了明显的好转，因为主给了我新的灵魂！在教会这个大家庭里，我也学会了怎样处理问题，怎样不去恨人，原谅别人。我现在也知道，只有让主为我掌权，我才能得到救赎。我时常祷告："主啊，我把我们家每一个成员的灵魂，思想，肉体，完全交托给你，求你为我们掌权，阿门！"也知道每次都要先求神的国和神的义，其它的，神都明白，神的恩典永远够用。在这个教会里，我也不再隐藏，彻底卸下自己的伪装和防备，有什么想不开的，就及时请教我们的传道人 – 陈传道，他会借着神的话语给我解答。

总之，我们家比以前更相亲相爱了，也会用神的话语安慰对方！我想，这就是神愿意看到的，因为祂一直爱我们，我也求主不要离开我，如果没有主，我将一事无成！感谢赞美主。愿一切的荣耀与感恩全归给我们在天上的父。阿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장 16-17절].아멘!

이 말씀이 항상 저의 머리 속 깊은 곳에 깊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저의 체험과 느낀 점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진화론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창조론을 견결히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고 신이 우주만물과 지구상의 모든 사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믿지만, 그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신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할머님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어렴풋이 기억 합니다. 할머니는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자주 예배를 드렸지만, 그때 저는 그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매우 엄숙하다는 것을 느꼈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가정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고통을 겪으면서 저와 저의 어머니는 하루종일 불안 속에서 지내왔고, 아주 작은 평안과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울증까지 걸렸습니다. 제가 20살 되던 해, 어머니는 저에게 심리학 공부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였습니다. 자신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 저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고, 그 자매는 저를 처음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셨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자매는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선물해줬지만, 저로 하여금 정말 미안하게 생각되는 것은 얼마 후, 그 성경책을 잃어버렸습니

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고 저에게 항상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의 도움으로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날 꿈에 그 분은 저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라는 저의 질문에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 나자마자 저는 어머니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미국 가면 꼭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을 찾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제 곁에 또 한 자매님을 보내주셨고, 그 자매를 통해 퀸즈장로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우울증과 심한 불면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했지만, 견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장과 스트레스로 인해 저와 아내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심정은 우리 부부의 감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과거에 제가 자해하고 폭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신,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아껴주셨습니다. 그 분은 온유와 사랑으로 저를 연단시키셨고, 인도하셨을 뿐만아니라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이런 보살핌 속에서 저는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가 있었고,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드렸지요. 처음으로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까지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였고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저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물을 창조하셨고,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등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고 아는 것도 원하지 않았지만, 저는 매번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아내를 위해 성령님께서 직접 감동시키시고 아내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내는 먼저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저는 제한된 저의 지식으로 아내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아내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아내는 주동적으로 교회 모임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주님안에서 교제를 하며 마음을 다해 말씀도 읽고 기도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세 가족은 미국으로 먼저 오고 그 당시 어머니는 미국에 오지 못하셨습니다.(집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어머니가 순리롭게 미국에 도착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 여기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상봉하길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어머니를 우리 퀸즈장로교회로 모시고 나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국에 도착한 시간도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비자가 통과되었던 시간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였기에 미국에 순리롭게 도착할 수 있었고 저의 믿음 또한 더욱더 견고히 설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기 때문에 저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저의 가정 3대는 모두 교회에서 여러가지 모임에 참가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아낌없이 서로를 대하고 저도 편온한 마음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의 우울증도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때문입니다.저는 교회의 대가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주관해 주셔야만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한 사람, 한사람의 영혼, 몸과 생각을 주님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아멘!"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자아보호와 위선을 철저히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바로 우리 천위제 전도사님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천전도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한마디로, 저의 가정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고 또한 더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그 분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올려드립니다. 아멘!

经历复活的主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면서...

– 常达弟兄 (Chang, Da 형제)

当耶稣受难被钉十字架，主的门徒们那个时候是四散而逃到处躲藏。他们没有了平安，也没有了喜乐，因为他们没有了盼望。七日的第一日，天使宣告主耶稣从死里复活了。当门徒们经历了耶稣的死而复活之后，他们的人生就不再一样了。他们有了喜乐，他们有了平安，他们的人生有了使命，有了方向。因为他们有了盼望，有了复活的盼望。

我虽然服事主有十八年了，但是在我个人的生命中，也有过软弱、流泪、失败的时候。在我的婚姻中，这位复活的主让我从等候中的软弱、小信、失望，到拥有复活的盼望。2013年，我在东北神学院刚刚毕业，在家庭小组讲道。那一次的聚会，正好赶上妻子回国探亲，也来参加聚会。与妻子只一面之缘，没有说一句话。没想到这个从美国回来的姐妹，会成为我日后相伴一生的妻子。三个星期妻子回到了美国之后，家人就把我的情况介绍给了她。经过流泪祷告，恳切祷告，也得到了神给她的确据。后来经过家人的介绍，我和妻子恋爱了。通过微信和电话，我和妻子交往了一年时间。一起祷告，双方都明确了是神的带领。2014年，等候婚姻四年

多的妻子，放下了在美国正在学习的护士，也放下了家人和朋友，从美国回到了中国。我们结婚之后，妻子和我一起服事我所在的中国辽宁省锦州教会。

我家老邻居知道我的跨国婚姻，就跟我妈说，不信，怎么地也不信。说："这不是天上掉馅饼吗？就是掉馅饼也不会掉在你家"。因为知道我家的条件不好，真是房无一间，地无一垄。不可能，怎么地也不信。

是的，在人不能，在神凡事都能，在神没有难成的事。做梦都没想过，农村媳妇都娶不起的我，没想到却娶了大洋彼岸的美国媳妇，也没想过会来美国。更没想到上帝给我预备韩中长老教会，这么好的、有恩膏的教会，让我去服事祂。圣经说："神为爱祂的人所预备的，是眼睛未曾看见，耳朵未曾听见，人心也未曾想到的。"林前2:9。感谢神！让我在婚姻中和服事中，感到虽然我们可能会有软弱的时候，但是神永远刚强。虽然我们会有小信的时候，但我们所信的神，祂永远是信实的。虽然我们会有失望的时候，但是当我们仰望这位复活主的时候，祂让我们永远拥有希望，拥有复活的盼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 제자들은 사방으로 도망치고 숨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없었기때문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천사는 예수님께서 죽음가운데서 부활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후,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평안도 있었고, 또한 사명도, 방향도 생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긴지 1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저의 영적 생명에는 연약함과 눈물, 그리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저로 하여금 기다림 가운데 연약함, 작은 믿음, 실망으로부터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2013년, 제가 동북신학교를 금방 졸업하고 가정모임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마침 중국에 가족방문을 온 한 자매가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었기때문에 한마디의 대화도 못했지만, 미국에서 온 자매가 나의 미래의 아내가 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3주동안 머물다가 미국으로 돌아간 자매에게 가족들은 저의 상황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매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가족의 소개로 저와 아내는 윗첫과 전화를 통하여 일년이란 시간을 교제하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2014년, 4년동안 결혼을 준비하고 기다리던 아내는 미국에서 공부중이었던 간호사공부를 포기하고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미국에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저는 제가 지내고 있었던 중국 료녕성 금주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다국적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은 저희 어머니에게 "이것은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 것 아니예요? 설마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 하더라고 당신 집에는 떨어질 이유가 없죠" 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집은 조건도 나쁘고 정말 방 하나, 땅 한평도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골처녀도 시집오지 않는 저에게 미국 아내를 맞이하고, 미국에 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좋은 퀸즈장로교회로 보내주셔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것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강하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复活的生命之主–耶稣基督!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刘淑钦姐妹 (Liu, Shuqin 자매)

"若没有死人复活的事，基督也就没有复活了。若基督没有复活，我们所传的便是枉然，你们所信的也是枉然."[林前15:13–14]

感谢主耶稣基督, 因祂十字架的大爱，复活的生命，使一切信祂的人有永生！有盼望！有依靠！在纪念主耶稣复活的日子里，我以非常感恩的心，见证神在我生命中奇妙的恩典，数算神恩！荣耀主名!

我是95年在中国时因丈夫病重，接受了福音。主的大爱，教会弟兄姐妹夜以继日的祷告，但神的旨意却接他回天家。临终前，他亲眼见白衣天使来接他回天家。这给我当时初信的人一个不可思议的见证！当年为治夫病，变卖房产。他走了，留下八岁的女儿和债务。我以泪洗面，怎么办？教会弟兄姐妹的关心安慰，主的爱，顾念寡妇孤儿的困境，奇妙的安排，让我以教会名义去孤儿院工作（教会每月给生活费）。每逢我祷告，主总是给我一句，"应当一无挂虑"。

经历四年孤身带孩子的艰难生活，神一直没有忘记孤儿寡妇在祂面前的呼求！99年神藉着主内姐妹介绍来自美国丧偶的弟兄与我结婚。2001年我母女俩移民来美国。感谢神！一切的安排真的是超过了我所需所求！来美一年后，女儿查出患甲状腺癌。我的心再次落入低谷，伤心不已！但神的爱并没有离开我。弟兄姐妹爱心帮助、祷告。动二次大手术，姐妹都在手术室外不住祷告。神藉此让我女儿经历了神医治的大能。若在中国，哪有钱动手术？完全看到了神有美好的旨意在其间！如今我女儿已婚，并育有一女，叫Jasmine Lin。在教会儿童部。

经历了人生太多的困境。这一路走来，见证很多。由于刊物字数的安排，只能略讲一点点。感谢神！祂不仅在生活上让我脱离困境，更让我在生命中，真正改变！世上一切不再吸引我。我心里留有空处，为主居住。天天追求神的同在！我感受到，神无时不刻都与我同在！如今有吃有穿有住，我还需要什么？我唯一需要的是：我常在主里面！主也常在我里面！多做主工！讨神喜悦!

提摩太后书1:12，"为这缘故，我也受这些苦难。然而我不以为耻，因为知道我所信的是谁，也深信祂能保全我所交付祂的，直到那日。" 愿一切的荣耀归给我们在天上的父!

"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고전15:13-1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생명에 부어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는 95년도에 중국에서 남편의 중병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 밤낮으로 기도를 드렸지만, 주님의 뜻은 남편을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였습니다. 임종전, 남편은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데리러 왔다며 말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초신자인 저에게 충격적인 간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남편의 병 치료로 집도 다 팔았기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남겨진 것은 8살 딸과 빚이 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교회 형제, 자매들의 관심과 위로, 그리고 과부의 어려움을 보살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저는 교회의 이름으로 있는 고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매달 생활비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매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한마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혼자의 몸으로 아이를 돌보는4년이라는 힘든 생활을 겪으면서,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 분은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99년도에 한 자매의 소개로 저는 미국에서 온 부인과 사별한 한 형제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그렇게 저와 저의 딸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저의 생각과 제가 구하는 그 이상으로 주십니다. 미국에 온지 1년 후, 딸은 갑상선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다시 한번 깊은 수렁에 빠져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딸로 하여금 치유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중국에 있었다면 무슨 돈으로 수술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딸은 결혼도 했고, 딸도 있습니다. 이름은Jasmine Lin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아오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한 된 시간으로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가운데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지만, 더더욱 저의 영적 생명에 진정한 변화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저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저의 가슴 깊은 곳에는 주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저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항상 제가 주님안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의 안에 항상 계셔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하는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受洗后的感想 세례 받은 간증

– 高茜姐妹（Gao, Xi 자매）

大家好! 我的名字叫高茜。之前的我是一个无神论者, 别人给我传福音我也从来不相信, 觉得那是迷信, 还说世上哪有什么神, 鬼之说。

2014年4月17日, 今天刚好整整三年时间, 这一切不是巧合。 来美国后, 主一步步带领我认识祂, 我们的主非常有耐心和爱心, 祂用祂的耐心和爱来慢慢的等待, 让我认识祂, 每次想到这里, 心里充满了感恩。

我在受洗前已经蒙福, 真真切切感受到神的爱和恩典, 而且我身边大部分的客人和朋友都是基督徒, 每一位都是那么善良, 我想这一切都是主的安排, 祂想让我感受朋友的爱, 让我更快乐。

我是去年复活节第一次走进教会，从那天开始我的生活每天都充满喜乐和平安，这种充满是之前从来没有过的, 还有每次去教会哭得非常厉害, 但心里知道那是幸福的眼泪, 后来陈传道告诉我那是因为一个迷失的孩子终于找到了父亲。

后来我看了大量的牧师讲道视频，才知道原来我们还有一位这么爱我们的天父, 祂拣选了我, 爱我 突然幸福感倍增, 一下子觉得身份也高贵了。天赋给了我所有我需要的, 甚至我没有想到的祂也帮我想到了, 我决定受洗。

2017年4月9日, 我正式受洗归主, 成为神家的孩子, 主说, 神的孩子祂必看顾, 不但今生有盼望, 来世还有永生。 感谢赞美主,一切荣耀归都给我们的主! 阿门!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gao, xi입니다. 예전에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도 저는 믿지 않았고, 미신이라고 생각했기때문에 이 세상에 신이나 귀신이 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4년 4월 17일, 오늘이 마침 3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 와서 주님께서는 저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내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입니다. 그 분은 자신의 인내와 사랑으로 저를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저의 가슴 속으로부터 감사가 넘쳐나네요. 저는 세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느꼈고, 저의 주변의 손님과 친구들 또한 모두 크리스찬입니다. 모두 너무 착하지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로 하여금 친구들의 사랑을 느끼게 하였고, 제가 기쁘게 살 길 원하셨습니다. 작년 부활절에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였고 그 날부터 저의 삶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쳤으며 이런 충만함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갈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저는 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후에 천전도사님께서 이 눈물은 잃어버린 아이가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 너무 행복한 눈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 분이 나를 구속하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두 배로 커져 신분도 더 존귀해 진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모두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세례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7년 4월 9일, 저는 드디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보살펴 주시고 금생에 소망을 주실 뿐만아니라 내생에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儿女是耶和华的产业!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

– 吴晓丹姐妹 (Wu, Xiaodan 자매)

感谢主！若不是陈传道邀请我写这篇感想，我也许还在带孩子的忙碌中度过，忘了读经，忘了祷告，也很少参加教会聚会。上帝以这样的方式来提醒我要亲近祂。

回想起自己当初还纠结于天主教和基督教之间，心里不断的祷告求神来帮助，在神的带领下第一次去了教会，跟着陈传道做了决志祷告。信主的这两年时间，我无数次的经历到神的大能和信实。认识神让我的人生观和价值观彻底发生了改变。我不再害怕死亡，因为知道将来要去哪里。我愿意做十一奉献，因为知道我的一切都是上帝给的。

当了母亲以后，我常常在思考一个问题，我有什么东西可以传承给孩子，让他们一生受益？以前肤浅的觉得只要给予足够的物质保障，让他们生活无忧。可是物质条件好，但活得不快乐的人太多了。真正的富足是内心的平安和喜乐。曾经听过一位牧者说：他很幸运的出生在一个基督教的家庭，信仰可以传承，但信心是自己的。我很赞同！我希望我的两个孩子从小就能学习真理认识神，信靠神，因为我不能时刻陪伴在他们身边，但上帝可以！圣经上说：儿女是耶和华所赐的产业；所怀的胎是祂所给的赏赐。（诗 127:3） 教养孩童，使他们走当行的道，到老也不偏离。（箴 22:6）养活一个孩子容易，只要给他饭吃就行。养好一个孩子不容易，父母的言传身教之下，对孩子的性格、习惯有着很大的影响。孩子好的行为，坏的行为都是父母教育结果。

虽然我们本身也有许多缺点和软弱，但主怜悯我们，他比我们想象的更爱我们。爱我们甚至舍掉自己的独生子，替我们赎罪。 感谢主拣选了我们成为祂的儿女，信耶稣是这一生最美的祝福！

만일 천전도사님께서 저에게 간증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아이들을 키우느라 바쁜 가운데 살고 있었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뒤로 한 채, 그리고 교회 모임에도 적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주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던 그 때가 생각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쉬지 않고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처음으로 교회에 와서 천전도사님을 따라 영접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2년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의 크심과 신실하심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 가면서 저의 인생관과 가치관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더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장차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십일조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기때문입니다. 엄마가 된 후, 저는 어떤 것을 물려주면 아이의 일생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보장을 줘서 생활걱정이 없이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내면의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느 목사님께서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신앙을 유산으로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믿음은 자신의 몫입니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두 아이가 어릴 때 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분만 의지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 순간마다 아이들 곁에서 함께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음식만 먹여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를 양육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과 행동이 아이의 성격과 습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이의 올바른 행동이나 잘못된 행동 모두 부모의 교육 결과입니다.

비록 우리는 결점과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태어났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자녀로 택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5/7 中文堂儿童主日崇拜 5/7 중국어부 어린이 주일예배에 대하여...

陈玉捷传道 (천위제 전도사)

主耶稣说：「让小孩子到我这里来，不要禁止他们；因为在天国的，正是这样的人。」（太 19:14）不要禁止孩童到耶稣面前，这是主的命令。父母和教会都有责任要带领孩童到耶稣基督的面前，使他们蒙恩得福。

感谢主，中文堂的人数不断地增加，小孩子的数目也不断地加增。为了更有效的帮助孩子们到耶稣面前，中文堂将在5月7日开始中文的儿童主日崇拜。由我们的孙约翰传道负责传讲信息，还有几位的弟兄姐妹配搭一同服事这些小孩子。儿童主日崇拜的对象是两岁至五岁的孩童。

希望藉着这个新的事工，使更多讲中文的孩童能够认识耶稣，从小就有耶稣在他们幼小的心灵里面与他们同在。也祈望藉着这些小孩子的信心，把恩典祝福带回家，使他们全家都蒙福。

愿上帝赐福我们的孙约翰传道和几位同工，藉着他们的生命成为这些孩童一生最美的祝福，把荣耀归给爱我们的天父。感谢赞主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마19:14）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와 교회 모두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국어 예배가 어른들이 부흥함에 따라 아이들의 수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5월 7일, 중국어부에서는 어린이 주일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손요한 전도사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몇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아이들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예배의 대상은 2살부터 5살까지 드리게 됩니다. 새로운 사역을 통하여 중국어로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서 아이들의 어린 심령에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가정에 넘쳐 온 가정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요한 전도사와 여러 명의 교사들에게 축복하셔서 이들의 영적 생명을 통해 아이들에게 일평생의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되길 바라며 모든 영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비 증축 완공 감사예배

지난 6~7주간에 걸쳐 진행된 로비증축 공사를 마무리하는 감사예배가 지난 4월 15일 토요일 오전 7시 15분 본당 로비에서 있었다. 누리건설 사장, 직원, 여러 성도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감사예배는 이 공사를 앞서서 지휘했던 고국환 장로의 사회, 정길표 장로의 기도가 있었고, 2016년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자들의 특송이 이어졌다. 이어서 김성국 담임목사님이 "시작과 마침"(계 22:12~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이어졌다. 이 말씀에서 목사님은 "사자성어에 용두사미라는 단어 뜻이 용의 머리에 뱀의 꼬리라는 말처럼, 시작은 화려한데 끝은 미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구절과 같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끝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자"고 하였다.

204장 찬송 후에, 고국환 장로의 경과보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고, 그가 그 과정 가운데 계셨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로 경과보고를 대신하였다. 이어서 이 공사를 담당한 누리건설의 사장 이상준 집사의 감사인사가 있은 후, 김성국 담임목사님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무리 했다. 앞으로 증축 완공된 이 로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으로 자라가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한다.

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

3월 26일 주일 저녁 예배에 오인수 목사의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루디아 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렸다. 본문은 빌립보서 4장 2절~3절 말씀이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나누어짐을 보고 권면하는 내용으로 같은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더자로서도 같은마음을 품고 사랑을 가져야한다.

화려하고 예쁜꽃을 가슴에 달고 한 껏 멋을 내신 당당한 모습이었다. 헌신찬양은 "나의 힘이되신 여호와여"를 힘차게 불렀다.

여호수아 선교회 헌신예배

여호수아 선교회는 3월 29일 수요 저녁 예배에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 날은 매 달 마지막 수요예배를 "축복이 흐르는 예배" 로 드리는 날이다. 멋진 남성분들로 구성된 킹스콰이어 합창단의 "저 산으로 올라가려네"의 특별 오프닝 찬양으로 여호수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시작되었다. 말씀에는 열왕기상 2장 1절~9절 말씀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어 예배를 담당하는 첸위지 전도사가 전했다.

주의 길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녀들에게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함을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신찬양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를 찬양했다.

다비다 선교회 헌신예배

4월 2일 주일 저녁 예배를 다비다 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렸다. 최진식 전도사의 "다비다 쿰"이란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42절이었다. 다비다는 늘 사랑이 넘치고, 행동으로 사랑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다비다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셨다. 다비다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심을 확인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여인이었다. "평화의 기도를" 헌신찬양으로 올려드렸다.

갈렙 선교회의 헌신예배

4월 5일 수요 저녁 예배에는 갈렙 선교회의 헌신예배가 있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21절로 "날마다 날마다"라는 제목으로 배형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살고있다.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매일 훈련 시키셨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신다.십자가에 속하여 살때 "소망" 주신다. "십자가를 질수있나"로 헌신찬양을 드렸다.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

4월 23일 주일 저녁 예배에 마르다 선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다. 송요한 목사가 "베다니의 한 가족"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2장 1절~ 11절 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마르다 선교 회원들은 똑같이 맞춰입은 빛이나는 조끼가 눈에 띄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다. 영상을 통해 선교 회원들이 각 부서에서 섬기는 모습을 볼수있었다. 헌신찬양은 회원들의 섬김과 신앙의 간증이 보이는 은혜로운 찬양이었다.

사순절 치유 간증

"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

박만우 집사

박만우집사, 주봉순권사, 박우용집사

8년전 파킨스병을 얻고 날이 지날 수록 몸이 조금씩 더 병약해졌지만 하나님께서 시편 11편 말씀과 23편 말씀을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셔서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셔서 불편한 몸으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와줘야지만 가능한 일이였기에 남편이 없었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겠지요.

몇개월 전부터는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남편과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지만 몇개월째 다리가 땅에 붙은 것 같이 두 발을 뗄 수가 없어서 걷는 것이 엄두가 나지를 않아 새벽예배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라는 사순절 말씀에 대한 주제가 자꾸 떠오르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중반부터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벽예배에 나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후에 "나의 등 뒤에서" 찬양을 하며 일어나 걸어야 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당 앞까지만 나가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내딛어 찬양이 두어번 반복된 후에야 본당 앞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은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되었고 두 발로 걷는 것이 큰 축복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 새벽예배를 다녀오고 나면 남편이 일을 나간 후, 낮에 혼자 집 밖을 나가서 동네를 한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가져온 전도지를 가지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고 편지함에도 넣으며 기쁜소식을 전합니다. 날이 좋지 않거나 몸이 힘들어서 하루 쉬려고 생각하다가도 도저히 가만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게 됩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너무나 큽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을 주셔서 오랜 시간 병약한 저를 돌보아주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님들의 사랑과 기도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섬겨주신 동역자 권사님들이 있게하셨습니다.

주봉순 권사님과 박수진 권사님은 처음 병을 얻었을 때에 교구 전도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지금까지 친자매처럼 오랜 시간을 함께 하며 기도해주시고 섬겨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주신 선물과 기도응답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며 살고 싶습니다.

박우용 집사님 (박만우집사님 남편)

아내가 파킨스병을 얻고 오래 아팠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밝게 지내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워낙 긍정적인 사람이라 본인의 의지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병을 이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었고 예전에도 성경 말씀을 암송했을 때에 건강이 호전되는 경험을 했었기에 사순절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기대를 하기도 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과연 믿음으로 될까 싶었는데 걸음이 달라진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다시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내를 위해 애쓰시고 수고해 주신 교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봉순 권사
(박만우집사 삼겹줄 기도짝)

박만우집사를 알게 된 것은 6년여전 수요주부성경공부에서 환우들을 위해 중보기도한 후 고전도사님을 통해 박수진권사와 함께 기도후원자로 소개를 받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에 박수진권사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 작정기도를 하고 내려오기도 했으며 일주일에 3차례씩 가정심방을 하며 함께 기도하고 언니, 동생하며 지금까지 의자매처럼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괜찮아서 운전하고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경치 좋은 곳도 찾아다니며 지냈었고 작년 사순절에는 삼겹줄 기도짝으로 셋이서 개근을 하여 교회에서 받은 상품권으로 커피교제도 하였는데 작년부터 몸이 많이 않좋아져서 거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컸습니다.

올 해에도 삼겹줄 기도짝을 하였지만 걸을 수가 없어서 새벽기도를 못나오더니 어느 날 남편의 부축을 받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마침내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 말씀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걷는 것을 보게 되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박수진권사가 한국에 나가있어서 셋이서 개근은 못했지만 한국에서 돌아오면 셋이서 예전처럼 경치좋은 곳에 가서 사순절 기도응답 축하파티를 해야겠습니다. 모쪼록 더 연약해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가운데 신앙생활 잘 하고 아름답게 주님께 영광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순절 간증

“ 나의 등뒤에서 나를 지켜 주신 주님 ”

강춘화 권사

1984년 2월 미국에 이민와 처음 택한 퀸즈장로교회,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많은 신앙 훈련을 받고 시무권사로 섬기다 심방전도사로 만8년 섬겼다.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 그 곳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이 교회로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셨다. 돌아가서는 사람을 신경쓰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만날 준비만 하면서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려 했다.

이번 사순절 제목 “너를 고쳐주리라 - 건강할지어다!”를 보면서 나를 위한 제목이구나 생각되었다. 70년 이상 건강하게 살았지만 이상하게 이번에는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은데 잘 회복이 안되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려나 보다 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잘 안된다.감기가 심하진 않지만 기침 조금하고 콧물도 조금 나는데 열도 없고 머리도 아프지 않고 가래도 없다.

매일 새벽 기도후 4마일 정도 걸어도 힘드는 것 몰랐는데 어느 날부터 숨이 차서 중간에 쉬고 싶다. 의사에게 이야기하니 심장내과에 가보라한다. 3월 중순인데 가장 빠른 날자가 5월 1일 이란다. 그때는 급하지는 않으니 예약하고 기다리는데 하루가 다르게 숨이 차온다. 이렇게 급하니 의사를 좀 빨리 볼 수 없느냐 물으니 예약 손님이 취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한다.

주일 아침 교회 가기전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해요. 할 방법도 모르고 견디기 힘드니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요”하고 교회에 가니 김명자 사모님이 성전 문에 혼자 계시기에 말씀드리니 월요일에 응급실로 가라 하신다. 주치의께 이야기도 안 했는데 하니 병원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 하신다. 다음날 새벽 기도 마치고 목사님 기도 받고 병원에 입원(4월3일-12일)해 조직 검사(4일), 수술(7일)까지 다 마치고 12일 저녁 퇴원하였다.

병실에 누워 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나는 몰랐어도 나의 등 뒤에서 지켜주고 보호하셨던 손길을 환하게 보여 주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여학교 때 친구들과 여행가고 싶어 어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안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신다. 그런데 가고 싶어하니 더 이상 말씀 없이 눈물 흘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지금도 잊을 수 없다. 하루는 딸에게 잘못했다 하며 이야기 하다 “할머니는 한번도 엄마를 나무라지 않고 키우셨는데 나는 너를 잘 못 키워 미안하다”하며 눈물을 흘리니 “엄마 내가 잘 못 했어 이젠 잘 할께”하며 붙잡고 울던 기억이 난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딤후 1:5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으로 사는 딸로 키우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어 부모를 마음껏 섬길 수 있게 해 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인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장목사님 온 교인 성경 쓰기를 권하셨다. 순종하여 쓰다보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없이 받았으니 내 모든 시간을 드리고 싶어 1년에 1번, 3년에 3번을 썼더니 부족한 것 투성이나 하나님이 주의 사역자로 부르셨다. 사역하는 중 다리에 통증이 생겨 병원에 가니 허리 디스크란 진단이 나왔다. 점점 심해져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잘 치료받으라 허락하시고 치유 기도까지 해 주셨다. 좀 치료 받다 주치의 홍재광 장로님 께서 허리 M.R.I 찍어 보자 하셔서 사진을 찍으며 현재 많이 아프니 치료해 주셔야 사역을 감당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며 그러나 사진에는 아픈 것 나타나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월요일 찍었는데 금요일 오후 결과가 나왔다며 수술 할 단계까지는 아니나 심하니 의사를 바꾸어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하신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만져 주셨는지 통증이 거의 사라졌는데 그래도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물으니 할렐루야 하신다. 그 다음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라 하루 종일 뛰었는데 피곤은 하지만 아픈 다리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빨리 회복시켜 주심 감사 할 뿐이다.

2016년 전교인 성경 통독 있었다. 읽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나 하나님의 그 은혜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 부족하고 보잘 것 없지만 내개 있는 시간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더니 15번 읽을 수 있었다.

함 전도사님이 좋은 병원으로 인도하여 응급실로 찾아가 수속하니 기다림 없이 바로 입원, 검사가 시작된다. 폐에 이상을 찾아 다음 날 조직 검사로 들어 갔다. 담당 의사가 “직업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 “은퇴하고 집에서 쉰다”고하니 “그 이전에는 무엇을 했느냐”하신다. “교회에서 전도사일 보았다”하니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가 보다. 조직 검사는 코로 호수를 넣어 균 일부를 꺼내 배양해 보고 또 조직 검사도 할 예정이라 한다. 염증이 심한 것 발견하고 투약을 시작하는데 조금씩 차도가 보인다. 바이러스가 있고 폐가 많이 부어 있다고 알려 준다. 기침도 계속하고 몸 무게도 주니 다시 한번 조직 검사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금요일(7일) 날짜를 정하고 기다리는데 이번엔 수술이라고 전하며 “50%는 암일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나도 모르게 주치의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니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나가더라.

이달 구역예배를 저희 집에서 드릴 예정이었다. 내가 병원에 있어 장소가 바뀌었다. 구역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며 차편을 제공해 주겠다 약속했었는데 차편을 부탁 할 사람이 없어 남편을 구역 예배 참석하라고 보내고 혼자 수술실로 갔다. 4시에 수술실로 들어가 설명듣고 1시간 예정이라 하였다. 수술할 의사에게 만일 암 세포 발견하면 다시 수술하느냐 물으니 수술은 더 이상 없고 의사 몇명이 협의 하에 치료로 들어 간다고 하신다. 수술실에서 “보호자 어디 있느냐” 찾는다. “여기 없다”하니 “혼자 사느냐” 한다. “아니라”하니 “어디 갔느냐”묻는다. “교회에 갔다” 하니 더 이상 질문을 안한다. 한 시간 예정이였으나 눈을 떠 시간을 물으니 8시30분 이란다. 또 잠들었다 깨어나니 9시 30분 정도 되어 방으로 옮기다 다 토하고 남편은 구역 예배 마치고 아무리 연락해도 안되니 병원으로 달려 왔다. 몸에는 구멍을 뚫고 호수를 끼고 작은 상자를 달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남편이 옆에서 밤새 시중하다 새벽 기도 시간되어 교회로 가고 혼자 일어나보니 움직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도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되었다.

수요일 오후 퇴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으니 하나님이 뵙고 싶어 교회로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 폐속에서는 암 세포는 발견 할 수 없었으며 박테리아도 없었다고 한다. 병명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염”으로 처방해 주셨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1월 27일 의사를 통해 폐염 예방 주사를 맞게 해 주셨고, 2월 3일 김성국 목사님 대심방때 오셔서 주신 말씀은... 렘 30:17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였다. 그때는 나 자신도 아무 이상을 몰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하셔서 미리 알게하시고 회복 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르는 저에게 김명자 사모님 통해 입원하여 치료받고 회복 될 수 있게 알려 주심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

이번 사순절 주제는 회복보다 아픈 사람 더 많다하며 힘들어 하시는 목사님 뵈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사순절 끝나기 전에 빨리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할 뿐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

‘목사님과 온 교회가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제게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 주심을 확신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젠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오직 예수”만 전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 할 뿐이다.

사순절 간증

“ 뜨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어요 ”

주봉순 권사

사순절이 끝나갈 무렵, 간증을 해달라는 권유를 받고 좀 망설였지만 한가지 간증거리가 있기에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자면 저의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옛날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저는 일본치하에서 해방되기 2년전인 1942년에 대전에서 어머님이 감리교 장로님이고 아버님은 평신도인 가정에서 오빠와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요~ 못해요~ 한다는 모태교인입니다.

유년기는 거의 교회에서 자란 기억뿐이고 청년기에는 꿈을 안고 서울로 진학하려 하였으나 실력부족으로 깨끗이 낙방하고 대전 감리교 신학대학 부설인 대전 보육대(2년제)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가 되어 김천으로 발령되어 시골생활도 해보고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친척의 도움으로 교회부설유치원교사도 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의 추억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30-40 대에는 세상 것에 매력을 느껴 신앙생활은 간신히 주일 성수만 하며 틈만 나면 친구들과 여행하고 운동하며 교회봉사는 꿈에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국내, 국외할 것 없이 돌아다니며 수영,골프까지 하며 세상에 빠져 살았는데 그 덕분인지 지금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운전도 즐겨하는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미국에는 오랜 친구때문에 오게 되었는데 바로 퀸장에 등록하여 겨우 교회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하나님께서 보스톤으로 보냈습니다. 보스톤 장로교회 전덕영목사님(장영춘목사님 후배)을 섬기며 7-8년을 지내다 장목사님의 권유로 다시 퀸장으로 오게 된 것이 벌써 8-9년이 되었네요.(사연이 많지만 다 쓸 수가 없습니다.)

퀸장의 사순절을 매년 개근을 했지만 2017년 사순절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집에서 살짝 주저앉았는데 척추 4번과 갈비뼈 끝부분에 금이 가서 아무 것도 하지말고 무거운 것을 들지말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았답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서있을 수는 없었지만 다행히도 운전하는 것과 살살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이죠. 목사님의 기도와 많은 교우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고 “너를 고쳐주리라 건강할지어다!”라는 말씀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할일이 많아요. 선교회와 주방봉사, 젊었을 때에 도망다니며 안했던 봉사까지 모두 아버지 앞에 가기전에 할 수 있도록 꼭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2주전 쯤 새벽기도를 마치고 베지밀 ½ 쪽과 커피를 가지고 차에 올라 찬송가를 들으며 495하이웨이를 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뜨거운 다리미같은 것이 허리에 닿은 것같아 깜짝 놀라 “이게 뭐야?”라고 중얼거리며 몸을 움추리니 또 한번 뜨겁고 무거운 다리미가 등을 미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아, 주님께서 만지시는구나!”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하며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 거의 다 나아서 조심조심 다닙니다. 아직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을 못했는데 여기에서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소개하고 싶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가족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식구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셨는지 새로운 가족을 주셨습니다.

딸이 없는 것을 아시고 믿음 좋고 똑똑한 딸과 머지않아 장로님이 될 사위와 예쁘고 똘똘한 손녀 2명과 잘생기고 사랑스러운 손자 1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나고보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만나게 하시고 사랑스런 아이들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한순간도 내 가족이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않고 기쁘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을텐데 저에게는 요리할 수 있는 재주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맛나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행복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저를 찾으려면 언제나 주방근처로 오시면 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꼭 잡수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선착순으로 몇분에게 원하시는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할말이 더 많은데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쓴 글이니 주책이라 하지 마시고 어머님 생각하며 읽으세요!

사순절 간증

"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순절 "

손정호 집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진정으로 새 것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근심 걱정이 우선되었고, 영접을 하고서도 내안에는 주의 뜻이 아닌 나의 뜻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짓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지 못하는 저였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

그러던 중 삼겹줄 기도자를 신청하라는 주일 예배 광고를 듣고 알게된 사순절 새벽기도! 진정 새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이 삼겹줄 기도로 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3.29) 교회 등록하였던 저는 교회 성도님을 많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일 점심때 자주 버디를 해 주셨던 심인보 집사님이 삼겹 제의를 해 주셨고, 교회 등록할 때 제가 속한 바울선교회 회장이었던 최원일 집사님이 떠올라 서로의 세겹줄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시작할 때 부터 저는 이미 의심하는 자였습니다. 진정한 새것이 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니라"(막 9:23) 말씀을 믿는자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2/1) 아내의 주재원 발령으로 저희 가족은 뉴욕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어설프게 시작한 육아와 집안살림은 저에게 고립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늘 "육아와 살림은 내가 할일이 아니다"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눈뜨자마자 쌀담그고, 스낵백 챙기고, 아이들 씻기고 입히고 머리 빗기고... 금새라도 도착할 듯한 스쿨버스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저를 몰아 부치는 매일매일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만큼 내안에는 미치광이가 미쳐 날뛰며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써 억누른 조급함은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표출되었습니다. 입으로는 버럭거렸고, 눈으로는 레이저를 쏘고 있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런 저의 행동은 회사를 다닐때도 똑같았던 저의 근본적인 습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바뀌고 싶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이런 간구함으로 시작했던 새벽기도...

기도하며 돌이키며 괴수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도 울었습니다. 새벽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했지만 저의 본성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성수련회 스킷 연극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도 우연히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의 옛습성과 연약함을 더욱 밝히 보게 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인 지방의 더러운 귀신들린 자 속에 있는 군대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며 한 말입니다. 자발적인 참여 의사없이 스킷에 참여했던 저의 마음에는 기쁨이 아닌 오히려 좋지 못한 죄악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에는 무수히 많이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를 내 뱉고 있었으며, 제 속에는 괴수같은 군대귀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회사 다니던 습성은 이내 살아났고, 회사 일처럼 척척 일사천리로 연습이 진행되지 않을때 제 속에는 교만과 비판이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티끌만큼도 아닌 내 능력으로 하려다가 스스로 분내고 비난하며 죄악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주여! 주여! 부르짓고는... 여전히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킷을 하는 당일 새벽에 주님께서는 "암탉이 알을 품듯 너희를 품겠다고... 내 품을 떠나면 안된다고... 내 안에 있어야 한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안에 있어야 함을 잊었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를 마지막 순간까지 일깨워 주시며 교만과 비판, 연약한 믿음을 참회하게 해 주셨습니다. 내 안의 죄를 자백하고, 살아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의 스킷은 너무도 은혜롭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습 때 했던 스킷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완벽한 스킷이었습니다. 스킷을 통해 제 마음 속 깊은 곳의 죄를 더욱 밝히 보게 하신 주님! 억지 감사와 남의 눈을 가리듯 외식으로 가득한 저의 연약하고 의심있는 믿음을 보시고, "믿는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니라" 말씀하시며 저를 주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안에 있을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획할 수 없고, 또 그 신비한 계획을 알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저의 가정에 일어난 기적을 말씀드린다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투정 한번 없이 일어나 옷입는 작은 딸, 처음에 잠투정을 부렸지만 점점 묵묵히 따라 나서는 큰 딸, 아내와 크게 다투어서 다음날 새벽기도는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다음날 차 안 각자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를 보면서 신비롭고 비밀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간증을 쓰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을 통해 주신 말이 있습니다. "죄에 집중하기 보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라"는 간증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후 13:4)

이번 사순절에 저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려고 합니다.

연약한 제가 주님께서 주신 새 힘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온전함 주시는 주님의 품안을 더욱 소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최집사님, 심집사님 감사합니다!

태아교실 간증

" 태아교실에서 받은 사랑 "

손명금 집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2]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레 26:9]

2016년 하나님께서 남편과 저에게 주신 새해 말씀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담임 목사님께서 심방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고 저희 부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확신이 들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겠다고 다짐하고서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11월, 저희 가정에 기쁨이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 가정에도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태명을 "기쁨"이라고 짓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기뻐하는자라"약속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짓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갖게 된 후, 이삭과 같이 산 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도 벅찼지만, 3개월동안의 입덧이 지속되면서 몸이 생각처럼 되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 두려운 마음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몸의 변화, 감정적 변화로 인해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주위 사람들에게 기도부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윤지영 권사님,조나영 권사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영아부에서 기도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셔서 당연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마음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든든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낸 6개월, 의사선생님께서는 산모는 너무 약해 보이지만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욱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려 나의 작은 속삭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아부실에서 이쁘게 만들어 보내주 신 태아교실 초청장을 받은 순간, 엄마로서 너무 설레었습니다. 첫 아기를 가진만큼 너무 부족한 것을 잘 알기때문에 알차게 배우고 싶은 마음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수업에 임하게 되였습니다. 수업은 성경적 태교에 대해서 그리고 산모체조, 산후조리, 산모피부관리, 산모식단등에 대해서 배우면서 모든 것이 재미있고 새로웠습니다. 사실 말씀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이명옥 전도사님께서 성경적 태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실제적인 예를 통해 태아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게 되었고, 자녀를 위해 마음 껏 축복할 수 있는 부모의 기도특권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정성으로 만들어 주신 간식과 선물들, 선생님들께 직접 배워서 남편이 만들어 준 연어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태중에서 뛰놀고 있는 기쁨이도 함께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당연하지만, 아무 조건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헌신해 주신 이명옥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아부 선생님들의 기도로 잘 크고 있는 우리 기쁨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예배자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잘 키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료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산모 안수 기도

수료증을 받으며

태아교실 강의

태아교실 간증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부모가...

명샛별 집사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셋째 아이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7년 동안 수현이, 지현이가 교회 학교 영아부부터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전도사님, 선생님들의 정성과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람을 보며 참 많이 감사 드립니다.

Own family도 아닌데 어떻게 남의 아이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부으셔서 많이 도와 주시고 기도 해주시는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셋째를 위한 태아교실에서도 정말 재밌는 운동도 배우고, 너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산후조리, 스킨케어, 태아 양육과 부부의 삶에 필요한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몇년을 돌아 보면서 하나님이 저희 삶의 구석 구석 임하셔서 일하셨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땐 of course 주님이 있다고 느끼지만 정말 주님의 presence 를 느꼈을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 앞이 깜깜할 때였던 것 같습니다.

힘들땐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지만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시간이 지나고 보니 고통 속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 이젠 감사할 뿐입니다. 그 외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통해 많은 life lesson 을 배울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기도와 주님께 의지하는걸 가르쳐주신 저희 부모님, 용서와 양보 를 통해 사랑을 이뤄갈수 있게 해준 애들 아빠, unconditional love 를 체험 할수 있게 예쁘게 커주는 우리 수현이, 지현이와 이제 태어날 우리 세현이, 기도 해주시고 응원 해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태아 교실에서부터 저희 딸 아이에게 저희가 사랑 한다고 주님이 사랑 한다는걸 보여줄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세상의 모든 좋은것들은 다 부어 주고 싶지만, 저희나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주님의 끊임 없는 사랑, 아픔 속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깨달음, 감사할 때나 힘들때 기도하며 응답을 듣는 그 fulfillment, 주님 통해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도와 주며 느끼는 joy... 이런건 only 주님만 그들에게 줄 수 있는것 압니다.

저희가 인생에 하나 하나 control 할수 없다는 걸 저는 힘들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주님을 personally experience 하고 그들을 통해 저희 믿음도 더욱 자라서 주님이 저희에게 특별히 주신 이 축복들을 주님이 보시기에 만족하게 저희가 쓰임 받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칼럼

준비되어 계십니까?

- 생명보험의 종류 -

이정훈 집사

"행복한 은퇴".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특히 성도들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나도 은퇴하면 여유롭게 단기선교로 하나님의 일도 마음껏 해보고, 가끔은 성지순례도 다녀보고 싶다'**는 꿈을 꾸어보셨을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한 은퇴란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은퇴하면 당연히 받게 될 것으로 믿었던 소셜 연금이 머지않아 고갈될 것이라는 소식이나, 많은 어르신들의 생명 줄과도 같았던 메디케이드 혜택을 축소 혹은 중단하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 등등 이제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해지는, 말 그대로 "불안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는 현재보다 적은 수입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평생 살아온 최소한의 Living Standard (기본 생활 기준)을 지키기 위해, 또한 더욱 늘어날 노후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실제로는 상상 이상의 수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미국 정부도 위에서 말씀 드린 소셜 연금 고갈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이제는 은퇴준비를 개인의 재량에 맡기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준비된 은퇴"를 위한 몇 가지 플랜을 소개해 드립니다.

1. IRA (개인 은퇴구좌)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을 위해 준비된 은퇴 플랜이며 소기업 등을 위해 준비된 SEP-IRA 및 SIMPLE-IRA등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단, 개인을 위한 플랜은 세금을 미리 내느냐, 혹은 추후에 돈을 찾을 때 내느냐에 따라 **세금을 나중에 내는 Traditional IRA와 세금을 미리 내는 Roth IRA**의 두 가지로 나눕니다. **즉, Traditional IRA의 경우 돈을 부을 때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상대적으로 현재 세금 보고 액수가 높은 고소득자나 젊은 층에 적합합니다. **Roth IRA의 경우 돈을 부을 때 미리 세금을 내므로 59.5세 이후 인출 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대적 장점이 있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현재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세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미국 정부 차원의 절세 및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만큼 무한정 돈을 적립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1년에 $5,500,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11,000까지만 적립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의 경우 Catch-up period라는 혜택 하에 연간 $1,000의 추가 적립이 가능합니다.

2. 401k (직장인을 위한 은퇴구좌)

비교적 큰 규모의 업체들이 직원들에게 주는 베네핏으로, 예를 들어 **특정 업체가 직원에게 6%의 Matching을 해줄 경우, 연봉 $50,000의 직원이 연봉의 6%인 $3,000을 적립할 경우 회사가 같은 액수인 $3,000을 맞추어 적립해주게 됩니다.** Matching의 비율은 각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Matching 비율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3. 생명 보험을 통한 은퇴준비

은퇴가 중요한 명제인 만큼 생명보험 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은퇴준비를 겸한 생명보험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본 상품들의 장점은 Cash Value가 쌓이는 동안에도 세금유예 혜택이 있고, 위의 IRA나 401k와는 달리 추후 인출시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보험의 특성상 가입자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추가적 장점도 있습니다. 적합한 상품을 믿을만한 업체에서 구입하시면 의외의 '숨은 혜택'이 많은 은퇴 대비용 상품입니다.

4. Defined Annuity 연금상품

이 또한 보험업계 등에서 선보인 상품으로, **가입자가 특정 액수의 상품을 구입시 보험사가 특정 기간 혹은 사망 시까지 일정 액의 연금액을 지급해주는 상품**입니다.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존재하므로 이 또한 믿을만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의 기도 "

피터 유(QPEM)

저는 어렸을 때 인생은 계획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기 전이였지요. 인생을 계획한 주인이 있다고는 믿었지만 확실히 그 분이 누구인지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카톨릭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카톨릭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대 초반에는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학교를 졸업 한 후에는 종교와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이 생겨 다른 종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과학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논리와 추론이 더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 삶의 공허함과 고독은 커지기 시작했고 제 삶에는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할 만큼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척이나 친구들의 죽음 앞에서도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데이트도 하지 않는 사이였지만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언젠가는 결혼하겠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버릇처럼 그 친구를 제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는 기독교인이라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길 원했습니다. 저는 마지 못해 그 친구를 따라갔는데 놀랍게도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불을 밝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도나 찬양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저의 딱딱한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렇게 제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정착할 수 있는 교회를 퀸즈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찾는가 싶으면 주차를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빠른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QPEM 12시영어 예배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날 우리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는 순간, 우리 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2014 년 8 월에 처음으로 QPEM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날 교회에서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제이크라는 아이가 아파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김도현 목사님께서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잃은 슬픔을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 저는 말씀을 통해 처음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어렵고 슬픈 그 순간에도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오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분명히 알게 됐고 성경말씀과 그 말씀이 주는 진정한 의미도 잘 이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QPEM에 온지 몇 주 안 됐을 때 저희는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이였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은 저희들은 목사님께 결혼식 주례를 부탁을 드렸고 목사님도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으로부터 혼전 상담과 복음제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은혜를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전 날 리허설이 있었는데, 그 날 저는 목사님과 제 아내 앞에서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 할 때 제가 갖고 있던 마지막 의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 아내가 말하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길 10년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과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저는 2014 년 11 월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 한 것 이였고, QPEM의 형제, 자매들과 이 사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Easter Confirmation

황찬영 고등부 (Jacob Whang)

Confirmation was nothing as I had imagined it to be. Every Sunday for about a month, I learned more about my religion and what it meant to be a Christian, walking closer with God. When I took these classes, I experienced what it was like to be proud to call myself a Christian. I learned about the ideals that my church was built on, about the principles of God, the roles of Jesus Christ, how He is fully God and fully man, the True King, True Prophet and True Priest, how our salvation takes place, and what it means to be confirmed.

This experience for me was a learning one and I'm glad that I was able to take these classes with Pastor Bae. His wisdom and experience allowed me to easily understand the important topics of becoming confirmed, provided the foundations for my faith, and organized the information comprehensively so that I could have this background. Although my confirmation was delayed due to certain personal circumstances, I am so glad I waited until Easter, when Jesus was resurrected, to revitalize my own spiritual beliefs and convictions. I am very proud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I am confirming my relationship with God.

“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발이되어... ”

– 차량 운행부 일일체험 –

조성순 집사

차량부 특집 기사 작성을 위하여 교회에서 운행하고 있는 교회 버스 노선표를 찾아 보았다. 새벽예배 노선, 금요일과 토요일 청년들을 위해 운행하는 노선, 그리고 주일 노선과 JHS 189 파킹장 셔틀 노선을 포함하여 17개 이상의 노선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하여 15대 이상의 차량과 4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로 운행되는 차량부의 위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차량부 간이 사무실에 비치된 노선표를 보며 느낄 수 있었다. 특별히 교회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교우들에게 차편을 제공하며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을 감안 할 때 예배를 위하여 누군가의 발이 되어지는 실로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인하여 함께 드리는 퀸장의 예배는 더욱 은혜가 충만한 것이다.

많은 노선 가운데 오늘 선정된 노선은 주일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운행되는 자마이카 노선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까지 운행되는 칼리지 포인트 노선이다. 시간표보다 약 10분 정도 이른 시각에 자마이카 노선 20호 버스는 교회를 출발하였다.

한국에서 새벽예배 버스 운행을 시작으로 남미를 거쳐 퀸장에서의 차량부 봉사만 10년이 넘으셨다는 김 집사의 노련하고 안정된 운행으로 첫 번째 픽업 장소에 도착 하였다. 탑승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맞이하시는 운전자도 서로 반기는 모습은 전혀 낯설지가 않다. 그리고 두번째 장소로 운행은 계속되었고 이어지는 행선지에 도착 할때 마다 네분, 두분, 한분 이렇게 오늘은 모두 아홉분이 탑승하셨다. 서로 살갑게 교회 버스에서의 만남을 기뻐하고 버스가 운행되는 동안 서로의 안부를 묻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들이 이어졌다. 선교회나 구역등 많은 만남의 자리도 있겠지만 이렇게 교회 버스에서 만나는 특별한 즐거움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니어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노선의 특성상 연세가 지긋하신 교회의 어르신들이 탑승하셨다. 한분 한분 나오실 때 마다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신속하게 나아가 문을 열어드리는 섬김, 편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섬김의 모습은 오늘 일일 체험이 아니었으면 알 수 없는 모습이리라. 중간 중간 다른 노선에서 교회로 들어온 교회 버스에서도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 이어진 22호 칼리지 포인트 노선에서도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나와 문을 열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워커를 내려 드리고 안전한 곳 까지 이를 때 까지 안내하는 모습엔 자연스러움이 배어 있다.

취재를 하는 오늘은 봄 날과 같은 햇살이 너무 아름다운 주일 이지만, 간혹 눈보라가 날리고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날들도 같은 섬김은 보는이 없어도 계속 되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하다.

몸이 편찮으셔서 버스에 타지 않으신 어르신을 생각하며 동승하신 분들도 운전자도 모두 한 마음이리라, 어서 속히 쾌차 하시고 다음주엔 꼭 버스에서 뵈요! 운전대를 잡은 손에 꼬옥 쥐여주는 캔디를 보면서 권사님의 넘치는 사랑이 느껴진다. 그렇게 받은 사랑으로 차량부 봉사자들의 섬김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40여분의 섬김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퀸즈 장로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다민족이 섬김을 받고 선교지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는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퀸장 차량부 홧팅!

주차가 편한 학교 주차장, 셔틀부가 모십니다.

– 차량 운행부 셔틀 –

최전상 집사

샬롬! 퀸즈장로교회의 부흥성장과 함께 주차장이 부족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되돌아 가시는 성도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셔틀부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새로 구입하였던 차량들이 지긋한 연륜의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Barclay Avenue 선상의 Edison 주차장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Sanford Avenue에 있는 Q189 중학교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각 차량에 무선통신기를 비치하여 기다리시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행을 하였습니다. 교회와는 더욱 가까와지고 짧은 시간에 왕복운행이 가능하며 급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여서 130여대의 차량이 매 주일마다 주차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와 차도, 그리고 운동장의 청소와 교통 표시기를 설치하고 주차하시는 성도님들이 불편하시거나 시간에 쫓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주위 환경이 깨끗해졌다는 인식이 들도록 하며 틈틈이 교회 주보와 전도지를 손에 들여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이 많이 쌓여 빙판에 넘어지기도 일쑤였고 비가 오면 낮은 곳으로 물이 고여 웅덩이가 되므로 맨발로 물을 퍼내시는 집사님, 강아지들의 오물과 쓰레기 낙엽 등을 치우시는 집사님, 마실 물 커피 등을 준비하시는 집사님.. 모두가 합심하여 봉사하시는 마음씨들이 아침 이슬처럼 아름답습니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한사람, Jack Leblance (Sep.16, 1964-Mar.23, 2014)의 3주기를 보내며 지난 17년 간의 행적을 회상하게 됩니다. 그는 밤낮으로 교회에서 볼 수 있었으며 교회의 보안과 차량운행의 정보를 언제든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주차장의 진입로에 잘못 주차된 이웃 주민들과의 차량문제나 학교직원의 실수로 문이 잠겨 있을 때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던 그였습니다. 50세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아쉬워하며 “Hi! Jack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지요”. 언제나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던 그는 임무에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 주차장에는 이중주차를 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자유로우니 많이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뉴욕시의 공원화 계획에 의하여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Shuttle부, 차량부 동역자님들이시여! 서신 곳에서 건투하시길 소망합니다.

“ 순종으로 얻는 은혜와 축복 ”

차광혁 집사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사순절 기도회 40일간의 대장정 축복의 시간이 틀림없지만 봉사하기에는 부담되는 날짜입니다.

‘우리 운행부에도 명령이 하달되겠지! 이제 부장 집사님이 차량운행을 부탁하면 올해는 못한다고 해야지’ 부장님이 거절 못할 이유를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아시다시피 1월에 빙판에서 크게 넘어져서 어깨 쇄골이 두동강으로 부러져서 아직 회복중에 있고, 또 매일 오전 오후로 2개의 가게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으며, 어떤 때는 24시간 오픈하는 빨래방에서 밤 10시까지 세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다른사람에게도 봉사할 기회를 줘야지 저만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D day-1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명령문 30호 한장을 주시면서 “집사님! 내일 아침부터 Pick up해 오세요”라고 한다. ‘아니, 남의 형편은 한번도 묻지 않으시고 Pick up 명단만 주시면 어떡하십니까!’라고 따져야 할텐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소리가 밖으로 새나오지 않습니다. 고개를 떨구며 명령문 30호를 받아들고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쿼바디스 도미네! 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형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하나님은 쌓아두셨던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담임목사님의 오랜 기도 중에 준비해 두셨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후에 합심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응답을 주시니 이것이 왠 은혜인지요. 사순절 첫째날부터 끊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밀려오니 이것이 왠일입니까? 우리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우리 가정은요… 우리 교회는요… 그리고 우리 나라는요… 선교사님들은요… 미처 기도제목을 내놓기도 전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너는 담대하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영적인 만나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목사님! 오순절까지 계속할까요?

보고합니다. 제 30회 사순절 새벽기도회 차량운행을 안전하고 친절하고 정확하게 운행했음을 대장되신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나에게 차량부란 ?

이영호 집사

저는 차량부 운송부장을 맡고있는 이영호집사입니다. 차량운송부는 총 8개 구간 밴 11대가 3부 예배를 위하여 운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든지 차편이 필요하신 성도분이 계시면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부서입니다. 저에게는 부원들 한분한분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며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한 집사

많은 성도들이 주차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흐름을 위해 봉사하고있습니다.

계대원 집사

저의 섬김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른 새벽부터 많은 성도님들과 하나님 사랑을 함께 나눌수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임동진 집사

짧은 시간 봉사하지만 학교에서 교회까지 가시는 분들의 다리 역활을 하며 봉사할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윤석현 집사

주님! 새벽에 나와서 차량 봉사하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의 기도에 꼭 응답하소서...

작은 봉사로 인하여 성도들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 드립니다.

최원일 집사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교회를 섬기니 교회가 더 잘 보입니다.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많은 성도님들과 가까워지게 된것도 큰 기쁨입니다.

셔틀부는 저에게 있어 또 다른 제자 훈련의 도장입니다. 셔틀 운전자로 저를 돕고 있는 아내를 평소보다 더 자주 볼 수 있는 숨겨 놓은 데이트 공간이기도 합니다.

오인택 집사

교회 차를 이용하시며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운전 봉사자를 통하여 요구하시면 즉시 시정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차편이 없는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차량부서이므로 주님께 쓰임 받는다는 마음가짐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집사

교회에서 운송부, 셔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차량을 주셔서 여러용도로 이용하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 모두들 협력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인데 주의 사랑으로 쓰임 받았기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진우 집사

차량부는 게으른 저에게 성도들을 주님의 집으로 모시고 오는 교회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소중한 봉사입니다.

심인보 집사

저는 퀸즈장로교회 차량부에서 11시 40분에서 12시 반사이에 2부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을 학교 파킹장으로 모셔다 드리고 3부 예배를 드리시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교회로 모셔오는 셔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에겐 받으신 은혜가 넘치시고 오시는분들에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웃는얼굴과 신속 안전하게 모시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지현 집사

지금 주차장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편안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는 축복이 모든 분들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김 만 집사

저에게 차량부는 믿음을 지킬수있는 소중한 봉사부서입니다.

차량부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정현 집사

차량부는 내게 꽃을 찾는 나비와 같습니다.

그곳엔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그곳엔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문과 길이 있어 늘 인도하심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습니다.

김수현 집사

운송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만남과 기쁨과 감사의 세가지를 동시에 받는 은혜의 시간이 운전 봉사 시간입나다.

이 시간을 사랑합니다.

사순절 차량 봉사자 회식 모임

소유영 전도사

토요일 저녁 7시반, Little Neck에 있는 '산에 들에'라는 식당에서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 기간동안 차량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한 회식 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보았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식사가 시작되었고, 간단히 식사를 마치신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위해서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오리고기 구이와 삼겹살로 사순절의 피로를 씻고 있는 중에 차량 봉사위원들과 몇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30회 사순절 기간동안 모두 17명의 봉사자가 있는데, 그중에 4명은 운전자, 8명은 안내로 수고하셨습니다. 운전자는 매일 4시 40분에 교회를 출발하여 사순절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발이 되기 위해 남들보다 이른 새벽길을 달립니다. 매년 교회 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노령화로 작년보다 교회 밴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65%가 줄었고, 매년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도 작년보다 줄어서 올 해는 4명이 운전을 맡아 봉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안내는 8명이 새벽 5시 10분부터 지정된 자리에서 차량들의 파킹을 안내하고, 나가야 할 차를 막고 있는 차의 주인을 찾아 주느라 애를 쓰고 계십니다.

차량부에서는 우리 퀸즈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먼저, 차량부에 봉사자로 지원을 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차량부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일손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셔틀부 운전자가 모자라 한사람이 4시간씩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모 권사님께서는 셔틀부도 아닌데 두시간 넘게 봉사하고 계실정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일손이 모자라서 한번 그 부서에 발을 담그면 다시 돌아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말을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부원을 다른부서에 뺏겼다고 표현합니다. 각 부서에 봉사할 인원은 부족하고 한사람이 서너개의 부서에서 봉사하기에 일하는 사람이 날마다 그 사람이 그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차량부 뿐 아니라 각 부서에서는 새로운 부원들을 찾아내는데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봉사하고 있는 사람을 빼가기 보다는 새신자들 중에 눈여겨 두었다가 권유하여 봉사하게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충고의 말씀은, 교회내 헨디캡 자리는 주일 포함 평일에도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헨디캡 자리는 빈자리가 아니라 핸디캡을 위한 자리이기에 대통령도 세울 수 없는 자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녁식사 한끼 회식으로 이분들의 수고를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의 말 없고, 빛도 없이 고생하시는 수고로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가 더 빛이나고, 교회 본당의 자리가 채워지고, 안전한 파킹장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라는 마음은 불편하시더라도 불만을 말씀하시기 전에 운전자의 고생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파킹장의 안내부원들의 지시에 따라 주차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나는 차량부원들의 눈들이 핏발이 서고 약간씩 부은 피곤한 얼굴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봉사하려고 했던 마음들과, 이 회식을 베푸신 분의 따뜻한 마음과 풍성한 사랑에 감사가 넘치는 즐거운 식사시간이었습니다.

차량부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차량위원회 명단

위원장	송동율		부위원장	김수연
위 원	이영호, 오인택, 최원일, 채영주			
운송부	부 장	이영호	차 장	팽종철, 김재헌, 임광섭, 차광혁
	부 원	안진우, 최선일, 김동일, 이성룡, Sam Lee, 홍승룡, 최선권, 정기영, 임 정, 남정현, 황의성, 최상호, 김 만 (18명)		
셔틀부	부 장	최원일	차 장	정영철, 정사용, 임석환, 최전상
	부 원	고종빈, 박 훈, 이왕수, 이희원, 차윤일, 황상우, 이기혁, 계대원, 김태선, 임동진, 심인보(회계실), 신기만, 심인보(찬양과 경배), 이희범, 이정훈 (20명)		
안내부	부 장	채영주	차 장	이재윤, 윤지현, 성낙원, 김동일
	부 원	김지한, 박철홍, 윤석현, 강 호, 김동은, 정해성, 정기영 (13명)		
관리부	부 장	오인택	차 장	이정우
	부 원	(2명)		
				(총 55명)

예배가 있는 시간마다,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먼저 교회에 당도하지만, 예배가 시작되서야 늘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 예배당 뒷켠 한자리에 앉아 예배 드립니다.

운전은 조심스럽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야 하고…

성도 한분 한분을 정성스레 모십니다.

비좁은 주차장에 한 대라도 더 주차하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이중주차로 막힌 차량통로를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다람쥐 채바퀴 돌 듯 학교 주차장과 교회를 맴돌며 웃음을 잃지 않고 인사를 나눕니다.

묵묵히… 미소를 잃지 않고 헌신하는 이분들에게 성도 여러분의 감사와 격려 는 큰 힘이 됩니다.

[편집부]

주일예배 주차대책 마련에 기도와 지혜를...

최원일 집사/ 차량위원회 셔틀부장

우리 교회의 점증하는 주차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모든 교우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교회 소유 주차장 세곳에 더해 샌포드가에 위치한 공립학교 189의 운동장을 매 주일 사용하는 협약을 맺어 주일 예배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주일 오전 예배 기준 이곳들의 주차 수용 능력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섰다.

1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립학교 189의 운동장의 경우 이 학교에 입주해 있는 소규모 다민족 교회 4곳에 20여대의 주차공간을 양보하고 나머지 80여대의 공간을 우리 교우들이 이용한다. 그러나 이 학교 운동장에 대한 뉴욕시 정부의 녹지공원 조성사업 계획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 문제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잠정 유보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이 현실화 될 경우를 대비해 우리 교회는 차량위원회 중심으로 올 초 부터 대안마련에 착수 했다. 새성전 건축이 본격화 될경우 공사기간 동안에는 교회 건너편 주차장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차피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대안 가운데 하나로 약 90여대의 차량을 주차 할수 있는 144가 노던 블러버드의 플러싱 은행 주차장을 대여하는 방안을 교섭중에 있으나 이 은행의 주차장은 은행 소유가 아니라 여러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어 책임 있는 협상 대상자를 탐문하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 120여대 주차능력이 있는 유토피아 스트릿 세인트 존스 대학(St. Johns University) 진료연구소와 교섭을 시도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20여명의 이 대학 동문들의 이름으로 서한을 보내 협조를 구하였으나 일반 배상책임(General Liability) 문제와 안전(Security) 문제를 들어 대학 빌딩 관리대행 업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교회가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것은 놀랄일이 아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다. 교회와 몇블럭 떨어진 학교 주차장에 차를 두고 셔틀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많은 교우님들의 성숙한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주차문제를 일정하게 관리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여러가지 주변환경 변화와 새성전 건축이라는 새로운 상황은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위한 교회로서 보다 장기적인 주차대책과 함께 당장에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주차대책까지 함께 요구하고 있다. 차량위원회는 물론 교회의 리더십은 이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니 교우님들의 기도가 절실한 것이다.

또한 주차대책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 주는 것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함께 지혜를 모을 때다.

"좁아도, 양보하고 배려하면 크고 편해지는 교회 주차장"

1. 한국어 예배를 기준한1부 예배를 제외한 각 예배 시작전 25분(10:05, 11:50, 1:35)에 입차를 시작합니다. 절대 미리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출차를 해야하는데 미리 들어 오시면 흐름이 깨어집니다. 일찍 오시게 되면 반드시 학교 주차장을 사용해 주세요.
2. 장시간 주차자는 꼭 학교 주차장을 사용해 주세요. 장시간 주차자의 협조 없이 질서있는 주차가 정착될 수 없습니다. (학교 주차장 셔틀 운행시간 7:45 ~ 3:45)
3. 교회 메인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은 예배 후 즉시 출차해야 합니다. 출차할 시간을 놓쳐서 다음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식사를 하실 분은 입,출차 시간이 자유로운 학교 주차장을 활용해 주세요.
4. 꼭 차량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이전에 등록한 차량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새 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 생기는 불편함도 문제이지만 소속 차량이 아니어서 생기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 차량만 안내에 따라 주차해 주세요.
6. 새가족 주차 공간에는 새가족 등록증을 가진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7.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주세요.
8. 교회 바로 맞은 편에 있는 파킹장은 교회 운송 차량을 위한 파킹장입니다. 주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9. 교회앞 전면도로는 승하차 전용으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가끔 토잉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10. 더 많은 주차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1부 예배후:2명, 2부 예배후:2명, 3부 예배후:1명, 4부 예배 후:1명)

소유영 전도사의 " 저랑 얘기 좀 하시죠? "

송동율 장로

퀸즈장로교회 공원 묘지 분양에 대한 송동율 장로와의 인터뷰

"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를 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찾다 "

퀸즈장로교회 공원묘지 분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송동율 장로님을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한 중국집에서 만났습니다. 사순절 기간동안 이른 새벽 파킹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며 밝은 웃음으로 성도님들을 맞이하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새벽 일찍부터 봉사하고 하루종일 일하고 문닫고 오시느라 눈가에 쌓인 피로가 역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송장로님의 이야기를 아가페 지면을 통해 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이 있어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많이 필요로 하고 또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도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만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몇가지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봉사부 주관으로 박세은 집사님, 박세희 집사님께서 주일 오후 1시 45분부터 2시 반까지, Low Income 및 시니어를 위한 복지혜택을 위한 상담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유산 상속 등 다양한 내용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복지를 위한 또다른 노력이 공원묘지 분양에 관한 일입니다. 20여년 전에 부모님을 위한 묘지 두 기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아버님도 뵈러 가고, 교회 장례일로 자주 가게 됩니다. 갈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은 묘지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주위의 큰 교회들은 묘지를 공동으로 구매해서 교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버지를 Pine Lawn Memorial Park 모시고 난 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묘지 사무실에 교회에서 단체로 묘지를 구입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뉴욕 스테이트에서 만개의 묘자리를 비영리단체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영리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지난 교회 년말 당회에 기획안을 올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복지 차원에서 시중가격 $5.000씩 하는 묘지 가격을 $1,255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면 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한 공간인 퀸장 동산에 모여 묻히는 것도 좋겠다" 하시며 적극적으로 당회에서 말씀하셨고, 당회원들도 모두 찬성하여 퀸즈장로교회 공원묘지 분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묘지에 가면 주위에 우리 교인들 뿐만 아니라 아는 분들이 많이 묻혀 계시고 가끔은 그분들 생각에 마음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퀸즈장로교회 공원 묘지 분양의 동기가 되고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묘지의 물량은, 처음에 141기가 그룹으로 살 수 있는 제일 큰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봉사부가 생각할 때 조금 많다는 생각에 40-50개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리턴하거나 교회에서 보유할 생각을 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첫주에 141개가 다 팔렸습니다. 그런데도 200명이 넘게 신청을 해서 두번째 큰 98기를 목사님과 상의해서 확보했는데 그것마저도 다 나가고, 계속 신청서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40-50개도 많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묘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 주셨습니다.

공식적으로 확보된 묘지는 239개입니다. 1차 분양은 일단 끝냈지만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2차 분양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큰 땅은 없더라도 흩어져 있는 묘자리를 모아 10기 이상씩이면 종교단체로 기당 $1,255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봉사부 내 경조부에서 모든 것을 담당해서 이어나가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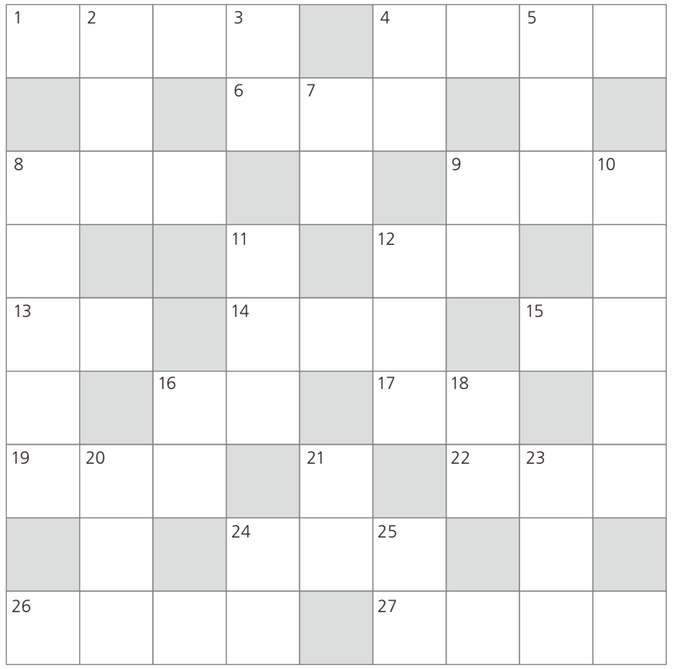
자격은 우리교회 등록 교인이면 누구나에게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퀸장 공원묘지 안에 퀸장 직계 가족 12명 가족묘지를 확보해서 만족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Pine Lawn Memorial Park의 묘지는 한 기당 두 명이 위 아래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퀸장 공원묘지 관리부서는 봉사위원회 경조부입니다. 2차 분양부터는 봉사부위원장인 함용식 집사와 경조부장 권혁민 집사가 전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묘지 관리에 대한 규약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더 나은 편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담임목사님과 당회가 교인들의 복지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복지사업들이 계획되고 추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한 아름다운 퀸장공동체가 되어감을 기대합니다.

성경공부 하 GO! 퀴즈 풀 GO! 상품 받 GO!



아가페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출제 김기호 장로

가로 세로 낱말 퀴즈에 정답을 채워 보내주세요.

1. 참여방법

낱말을 다 맞춘 후 정답지를 복사해서 친교실 음료대 옆에 비치된 아가페 응모함에 넣어 주세요

2. 응모기간

5월7일(주) ~ 5월20일(토)

3.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응모 마감일까지 접수된 정답지 중 다섯 분을 추첨하여 아가페 6월호에 발표합니다.

4. 상품안내

퀸즈장로교회 친교실 식권 10장씩

낱말퀴즈 정답은 아가페 6월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로 푸는 열쇠

1.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생활을 기록한 성경책.
4. 이러저러함(수7:20).
6. 상속받는 사람의 법률상의 호칭(창15:2).
8. 성벽 또는 성문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둥 같은 큰 나무(겔4:2).
9. 구약시대의 선지직, 제사장직, 왕직을 겸한 사람들의 기록. 구약 7번째 책.
12. 허리가 아픈 병(사21:3)
13. 아브라함의 여종. 이스마엘의 생모(창16:15).
14.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암4:5).
15. 시체를 나르는 제구(삼하3:31).
16. 암몬족속에 속한 랍바사람 나하스의 아들(삼하17:27).
17. 생겨나는 물건(민35:3).
19. 히브리말 제물의 희랍음역. 하나님께 바친 것이니 다른데 쓸 수 없다(막7:11).
22. 파수군이 아침을 ○○○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시130:6).
24.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아들이다(창46:12).
26.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긴 기념으로 사무엘이 세운 비석(삼상7:12).
27. 헤롯의 아들. 학정이 심해 파직됨(마2:22).

세로 푸는 열쇠

2. 매우 슬퍼하는 소리(약4:9).
3. 날씨가 대기 가운데서 일어나는 물리적 변화의 현상(눅12:56).
4. 남자 말구…(창1:27).
5. 요담왕의 모친(왕하15:33).
7. 물질적으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죄, 과오 등을 씻는 일(출29:36).
8.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행18:13)
9. 부부 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함(겔16:32).
10. 기브온과 동맹한 도시 중의 하나요 유다지파에게 준 땅(삿18:12).
11. 여름철에 갑자기 퍼붓는 큰 비(시72:6).
12. 제물을 흔들어 제사 지내는 제물(출29:27).
16. 음식을 놓고 먹는 상(마14:8).
18. 밴 아이를 낳는 시기(삼상4:19).
20. 야곱의 장자며 레아의 소생(창29:32).
21. 칠일(삼상11:3).
23.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후 이곳에 이르러 악담으로 원망하니 여호와께서 불로써 멸하신 후 이 이름을 주었다(민11:3).
24. 르우벤의 영지로서 레위 자손에게 양여한 성읍(대상7:37).
25. 히브리 곡식 되는 단위(왕하7:16).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퀸즈장로교회

W·E·L·C·O·M·E 2017년 3월 새가족 안내

Korean Ministry

마지은 1-Y-2 청년선교부	김진구 1-F9-3 갈렙	김중혁 1-F3-1 바울	김명자 2-F3-1 다비다	이건우 2-F3-4 중등부	이영 2-F3-4 뵈뵈	이지은 2-F3-4 유년부	김한나 2-Y-1 청년대학부	정성현 4-WS-4 디모데
신소영 4-WS-4 에스더	김성원 2-F11-1 바울	오자영 1-Y-2 뵈뵈	이호수 2-Y-2 청년선교부	유창호 2-F9-3 여호수아	유선미 2-F9-3 다비다	김택생 2-F11-4 아굴라	김분녀 2-F3-1 다비다	이미환 2-F1-6 마르다
김영록 1-F4-1 여호수아	김선림 1-F4-1 루디아	차신호 3-BS6-1 아굴라	차승희 3-BS6-1 브리스가	이빛나 4-Y-2 청년선교부	박동윤 4-Y-2 청년선교부			

Chinese Ministry

何丹虹	劉衛華	劉秀苓	吳秀霞	周秀女	孫宇飛	宋Amy	張儉玉	張凌妤
張曉東	徐秋芳	李姝鎏	李渃禾	李立春	梁妙玲	海鋒邱	王加瓊	王淑英
田新春	素紀琴	胡峰平	鄒淑行	鄭依嬌	鄭文道	郝維光	郭新海	金泓州
陳玉珍	陳紅	韓莉莉	魏立民	黃超				

■ **새가족환영회 안내**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지하 친교실**에서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식사와 함께, 새가족 여러분의 교회 정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나만의 레시피

길정애 집사님의 맛있는 콩나물 불고기

2부 찬양대를 섬기고 계신 길정애 집사는 찬양대 부총무를 맡고있다.
요즘 가끔 만들어서 아이들과 맛있게 시식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보는 메뉴라고 자랑하였다.

재료(2인분 기준): 대패삼겹살 1Lb, 송이버섯 2개, 양파 1개, 파 적당량, 콩나물(원하시는 만큼)

1. 콩나물과 채소를 깨끗이 씻어 준비해주세요.
2. 양념을 만들어볼게요.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4큰술, 간장 4큰술, 맛술 4큰술, 다진마늘 1큰술을 섞어주세요.
3. 팬이나 냄비에 콩나물 먼저 올려주시고 채소 모두 올려주세요.
4. 3번 위에 대패삼겹살을 올리고 분량의 양념을 올려주세요. 채소에서 물이 나와 물은 넣지 마세요.
5. 센불로 끓이시다 중불로 조금 더 끓이시면 콩불 완성.
6. 이젠 맛있게 냠냠. 밥위에 올려 비벼드시면... 간단히 일품요리 완성.

길정애 집사님